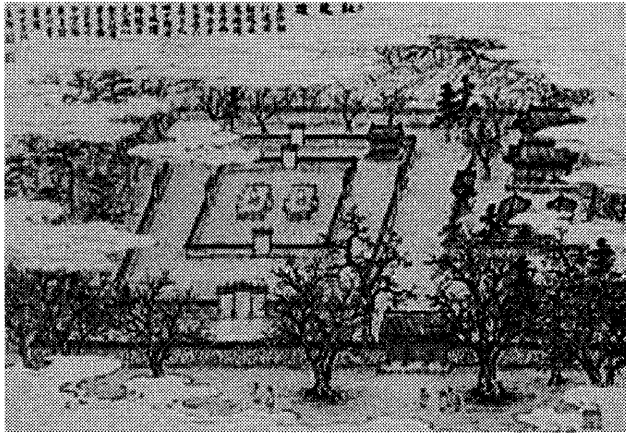


예올 포럼

서울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안

예올 포럼

서울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안



18세기 사직단도(社稷壇圖)

- 일시: 2003년 6월 13일(금) 14:00~16:00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

예올 포럼

서울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안

발표순서

■ 사회 :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 1 발표 / 14:00~14:30]

■ 사직제의 기원과 변천

이 영 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 2 발표 / 14:30~15:00]

■ 사직단 - 21세기 서울역시문화환경 회복의 열쇠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 3 발표 / 15:00~15:30]

■ 持續性的의 念願, 聖性的의 回復(지속성의 염원, 성성의 회복)

고 주 석 (오이코스 대표)

[종합토론 / 15:30~16:00]

■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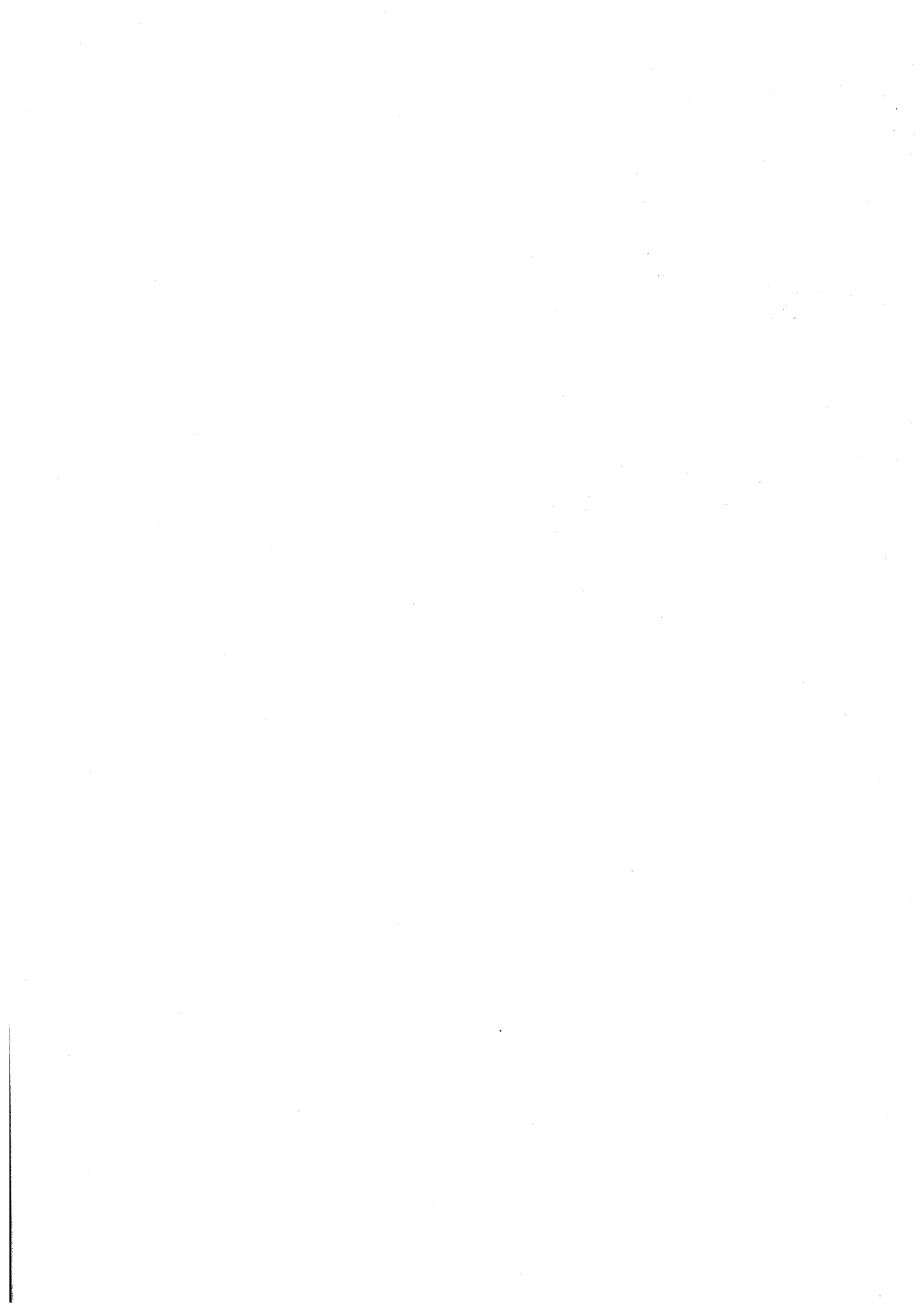
김 병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조 경 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조경학 교수)

송 인 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학 교수)

차 례

1. 사직제의 기원과 변천 -----7
이 영 춘(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 사직단 - 21세기 서울 역사문화환경 회복의 열쇠 -----15
김 동 욱(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3. 持續性의 念願, 聖性의 回復(지속성의 염원, 성성의 회복) -----27
고 주 석(오이코스 대표)
4. 토론 I : 사직단의 역사공원화를 위하여 -----49
김 봉 렬(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5. 토론 II -----53
조 경 진(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조경학 교수)
6. 토론 III : 사직단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57
송 인 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학 교수)



사직제의 기원과 변천

이 영 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원)

【目次】

1. 사직제의 기원
2. 사직제의 전래: 삼국시대
3. 고려시대의 사직제
4. 조선시대의 사직제
5. 결어

1. 사직제의 기원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조선시대에 종묘 제향과 함께 국가에서 행해지던 가장 중요한 제사인 사직제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제사이다. 이는 또한 고대 중국의 습속이 유교와 결합하여 의례화된 유교식 제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社)’는 고대 중국의 일정한 혈연이나 지역 단위로 제사지내던 공동체 혹은 그 제사의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되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토지신·농업신으로 형상화되었다. ‘직(稷)’은 순(舜) 임금 때 농사를 담당하던 대신이었고 주(周) 왕실의 먼 조상으로 간주된 전설적 인물이었던 후직(后稷)이 곡물의 신으로 신격화된 것으로 사에 덧붙여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사직의 제사는 서주(西周) 때 이미 국가와 지방의 공적 의례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 관념이 생기면서, 사직은 토지와 곡물을 관장하는 지기(地祇)로 간주되어 천신을 제사하는 원구(圓丘), 왕실의 조상을 제사하는 종묘(宗廟)와 함께 천자가 주재하는 3대 국가적 제사가 되었고, 국가의 운명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도 하였다. 원구의 제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사직과 종묘의 제사는 분봉된 여러 제후와 대부급까지도 시행할 수 있었다. 하늘은 오직 하나이지만, 조상은 가문마다 있고 토지와 곡식의 신도 지역별로 산재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의 <제법(祭法)>에 의하면, “천자가 백성을 위하여 제사의 대상으로 세운 것을 대사(大社)라고 하고,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을 왕사(王社)라고 하며,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을 국사(國社)라 하고 제후가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을 후사(侯社)라고 하며, 대부 이하가 집단적으로 세운 것을 치사(置社)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마을의 신을 제사하는 이사(里社)나 민사(民社), 망국의 사직을 제사하는 사도 있었다.

사직의 제사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질병으로부터의 안녕을 비는 기복(祈福)과 풍작의 기원이었다. 이는 고대 농업사회의 보편적인 공동체 제사의 형태로서 부여의 영고(迎鼓)나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비슷한 것이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동제(洞祭)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교와 결합되어 고급의례문화로 정비되고 국가의 중심 제사로 시행된 것이 사직제라고 할 수 있다. 사직 제사의 의례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의례로 정착된 것은 유교적 예법과 예제가 집대성되어 정리되었던 한(漢) 나라 때부터였다. 한 나라는 중국 최초의 진정한 유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2. 사직제의 전래: 삼국시대

중국에서 국가 의례화된 사직제가 우리 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였다.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故國壤王) 9년(AD391)에 처음 국사(國社)가 설치되었는데, 이 해에는 종묘(宗廟)도 중수된 것으로 보아 국가제사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는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때로서 372년에 전래된 불교와 함께 보다 선진적이었던 중국문화가 도입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때 설치된 사직은 종래의 동맹(東盟)과 같은 토속적인 제사가 아니라 보다 의례화되었던 유교식 제사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사직의 제사도 종래의 귀신(鬼神)·영성(零星:중국식 제사 대상인 靈星과 같음)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토속화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양서(梁書)』에는 겨울에 영성과 함께 사직에 제사한다고 하였다.

백제는 사직제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온조왕 20년(AD 2) 2월에 단을 베풀고 천지(天地)에 제사드렸고 그 후 여러 왕대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하였으므로(대개는 정월달이나 2월달에 제사) 사직제와 유사한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서는 중국식 의례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즉 삼국통일 후 100여년이 지난 선덕왕(宣德王) 4년(783)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제사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통일신라의 사전(祀典)에는 종묘(宗廟: 五廟制) 삼산(三山) 오악(五嶽) 선농(先農) 풍운뢰우(風雲雷雨) 영성(靈星) 등의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식 국가제사가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려시대의 사직제

고려는 개국한지 80여년이 지난 성종 10년(991)에 비로소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초기의 왕들은 태조 왕건을 비롯하여 모두 불교에 심취하여 사직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나, 6대 성종은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 국가 통치의 원리를 유교에 두고 유교적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직제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직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풍작을 비는 정규 제사 외에도 한발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전쟁 때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고려에는 사직 외에도 천신에게 제사하는 원구단(圓丘壇)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황제(黃帝: 上帝) 청제(靑帝) 적제(赤帝) 백제(白帝) 흑제(黑帝)의 5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고려의 사직은 처음에는 개성의 불은사(佛恩寺) 서쪽에 축조하였는데, 현종(顯宗) 5년

(1014)에 강감찬(姜邯贊)의 건의로 보수하고 제례의 규정[儀註]을 새로 마련하였다. 문종 6년(1052)에는 도성 내의 서쪽에 사직단을 신축하고 왕이 직접 제사하였다. 이때 배향한 후토(后土) 구룡씨(久龍氏)의 이름을 신주나 축문에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후토씨”라고 쓰도록 하였다.

고려의 사직단은 사단이 동편에 있고 직단은 서편에 있었다. 각각 단의 너비는 5장(五丈) 높이는 3척 6촌이며, 사방(四方)에 계단을 만들고 방위에 따라 오색토(五色土)로 축조하였다. 즉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흑색 흙으로 하고 중앙을 상징하는 황토(黃土)로 전체를 덮었다. 예감(祭물을 묻는 구덩이)은 2개로 각각 두 단의 북쪽계단(子陞)의 북남쪽에 있었다.

의종(毅宗) 때 사직의 제사의례를 자세히 정비하였는데, 그것은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에 수록되었고, 『고려사』에 그 내용이 잘 전해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직제와 거의 같은 것으로 우리 나라 사직제의 원형은 이미 고려중기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에 의하면 고려의 사직 제사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먼저 정규 제사의 날짜는 중춘(仲春: 2월) 중추(仲秋: 8월)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 후 첫 未日, 중국에서는 동지후 셋째 戊日)에 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사직제는 조선과 달리 국왕이 친제하지 않고 신하들이 대행하였는데, 헌관(獻官)은 태위(太尉)가 초헌관(初獻官), 태상경(太常卿)이 아헌관(亞獻官), 광록경(光祿卿)이 종헌관(終獻官)이 되었다.

신위는 각기 대사(大社)와 대직(大稷)이라고 하였고, 대사의 배위는 후토씨(后土氏) 대직의 배위는 후직씨(后稷氏)로 하였다. 대사와 대직의 신위는 단상(壇上)의 북쪽 편에서 남향(南向)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와 정반대의 좌향이다. 후토와 후직의 신위는 단상의 서쪽 편에서 동향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와 같다. 대사와 대직의 신위에는 짚 멍석을 깔았고, 후토와 후직의 신위에는 왕골 자리를 깔았다.

제사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폐(玉幣)였는데, 옥(玉)은 양규(兩圭)에 저(邸)가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폐백은 검은 비단으로 길이가 1장 8척이었다. 희생은 사와 직에 각각 돼지 1마리씩으로 하였고, 제수로는 오곡(五穀)과 술이 올려졌다.

제사의 순서는 『고려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재계(齋戒: 5일간 散齋와 2일간 致齋),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 전옥백(奠玉帛), 진숙(進熟),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飲福)의 차례로 진행되는데, 조선시대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외침과 내란을 겪었지만, 사직의 제사는 종묘의 제향과 함께 꾸준히 준행되었다.

4. 조선시대의 사직제

조선왕조의 사직 설치는 태조(太祖) 2년(1393) 한양에 새 도읍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어 이듬해(1394)에 완공되었고, 11월에는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터인 서부(西部)인 달방(仁達坊)에 건설된 사직은 동편에 사단이 있고 서편에 직단이 있다. 두 단(壇)이 각각 2장(丈) 5척의 정 4각이고,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각각 3층의 계단을 내었다. 각 단은 5방색(方色)의 흙으로 쌓고 황토(黃土)를 덮었다. 사(社)에는 석주(石主)가 있는데, 길이가 2척(尺) 5촌이다. 크기는 1척의 정 4각이며, 그 위는 뽕죽하고 아래의 반은 단에 심었다. 네 문은 연결하는 난간은 사방 25보(步)이며 주변에 담을 둘렀다. 국사(國社)에는 후토씨(后土氏)로 배제(配祭)하고, 국직(國稷)에는 후직씨(后稷氏)로 배제한다.

태조 4년(1395)에는 사직에서 연주하던 고려시대의 악장을 버리고 새 왕조의 악장을 마련하였다. 태종 6년(1406)에는 사직단(社稷壇)을 수리하고 수호하는 인정(人丁)을 배정하였다. 태종-세종대에는 오래 동안 법전 편찬과 함께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끝에 오례의(五禮儀)가 마련되었는데, 『세종실록』에 별집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직제의(社稷祭儀)를 비롯한 길례(吉禮)는 태종 때 허조(許稠)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것과 고례를 참작하여 만든 것이다. 성종(成宗) 2년(1471)에는 국왕이 친히 사직에 제사하였고 6년(1475)에는 『국조오례의(五禮儀)』를 반포하여 국가의 의례를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제사의 의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국사와 국직의 신위는 모두 남쪽에서 북향하고, 배위(配位)의 신좌는 각각 정위(正位)의 좌편에서 동향으로 있다. 매년 3차례의 대제(大祭)는 중춘(2월)·중추(8월)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에 거행하는데, 매위에 좌변·우두(右豆) 각각 12, 우·양·시·조(牛羊豕俎) 3, 보폐가 각각 2, 형이 3, 작(爵)이 3, 흑폐(黑幣)가 1이며, 저포(苧布)를 쓰는데, 길이가 1장(丈) 8척이었다. 정위(正位)는 각각 대준(大尊) 2, 착준(著尊) 2, 산뢰 2, 배위(配位)는 각각 상준(象尊) 2, 착준 2, 산뢰 2를 올리게 하였다.

축문(祝文)에는 “조선 국왕(朝鮮國王) 성(姓) 휘(諱) 누구”라 칭하고 그 내용은,

국사에게는 “덕은 커서 만물을 싣고 있고, 공은 높아 백성을 생존(生存)케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흠향하고 복록(福祿)으로 도와주소서.”

국직에게는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백곡(百穀)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은 내려와 감림하소서. 서직(黍稷)이 향기롭습니다.”

후토에게는 “직책이 오로지 흙을 맡아 만물을 싣고 기쁩니다. 정성껏 향사하고 비오니, 큰 복으로 도우소서.”

후직에게는 “좋은 곡식을 많이 파종하여 모든 백성을 고루 살게 해줍니다. 나의 깨끗한 향수(享鬻)를 돌아보아 거듭 복된 곡식을 주소서.” 하였다.

악장(樂章)은 아부(雅部)를 쓴다. 산재(散齋)는 4일이고, 치재(致齋)는 3일이다. 제사하기 7일 전에 서계(誓戒)를 받고 4일 전에 제의(祭儀)를 익힌다. 국왕이 친림할 때에는 아헌관은 왕세자, 종헌관은 영의정이고, 신하가 제사를 대리할 때에는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이다. 제사의 순서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같은데 재계(齋戒), 진설(陳設), 수향축(受香祝), 성생기(省牲器), 전폐(奠幣), 진숙(進熟), 아헌·종헌, 음복, 수조하고 축(祝)·폐(幣)·서(黍)·직(稷)을 묻고 복명(復命)한다.

이러한 정규 제사 외에도 특별히 기원을 올리는 기고제(祈告祭), 제사의 감응이 있을 때 올리는 보사(報祀)와 같은 약식 제사가 있었다.

각 지방에는 고을마다 주현(州縣)의 사직단(社稷壇)이 있는데, 보통 성(城) 서쪽에 설치하였다. 사·직의 단(壇)을 함께 만들고, 석주(石主)와 배위(配位)는 없었다. 서울과 같이 중춘·중추의 상무일(上戊日)에 제사하였고, 납(臘) 제사는 없었다. 배위에는 좌변(左?)·우두(右豆) 각각 4, 보배 각각 2, 시조(豕俎) 1, 흑폐(黑幣) 1, 상준(象尊)이 각각 2를 올리게 하였다. 제사의 차례는 서울과 대동소이한데, 축문에는 “어느 고을, 아무 벼슬, 성명 누구”라고 칭하고, “후한 덕으로 만물을 실어 우리 많은 백성에게 밥을 먹게 해줍니다. 길이 도와주시고 정결한 제사를 흠향하소서.” 하였다.

이러한 지방의 사직제는 각 고을의 토지신들을 제사하는 것으로, 종래의 잡다한 토속 음사(陰祀)들을 조선초기에 정비하여 유교적으로 의례화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고려 때와 같이 원구단의 제사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성종 때 폐지되었다. 원구단에서는 기곡제(祈穀祭)라고 부르는 풍년제가 가장 중요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폐지된 후에는 선농단(先農壇)에서 가끔 행해졌을 뿐 국가의 정식 의례가 되지 못하였다. 숙종 9년(1683) 1월에 전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의 건의로 사직의 국사단에 대신을 보내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이를 정례화 하도록 하였다. 이 사직의 기곡제는 숙종 21년(1695) 11월에 왕이 대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하면서 정식제사로 부활되었다. 그 동기는 당시의 극심한 흉작과 그로 인한 민생의 도탄으로서 사직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사는 영조 때 국가의 대사(大祀)로 승격되어 정조 때까지 매우 중요한 사전(祀典)이 되었다. 기곡제는 정월 상신(上辛: 첫 신일)에 거행되었는데, 사직의 정규제사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직은 원구단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남별궁 터에 원구단이 다시 설치된 후에도 기곡제가 사직에서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5. 결어

사직제는 고대 중국에서 토지신(后土氏)과 농업신(后稷氏)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제사였다. 그것은 원시 공동체의 제사에서 발전된 것으로 유교와 결합하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급 의례가 되었다. 사직은 천자의 종주국과 지방의 제후국들에게까지 규모는 다르지만 널리 설치되었고, 종묘와 함께 각기 그 국가의 운명을 상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도 부족국가시대부터 공동체의 제사들이 많았지만, 중국식 사직제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고국양왕(故國壤王) 9년(AD391)에 처음 사직단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제사의 대상은 우리 나라의 토지신(國社)과 우리 나라의 농업신(國稷)이었다. 백제에서도 유사한 제사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통일 이후인 선덕왕(宣德王) 4년(783)에 처음 설치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종묘·오악 등의 중국식 국가제사와 함께 사직제가 시행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유교 통치이념을 강조하였던 성종 10년(991)에 처음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를 시작하였다. 고려의 사직제의는 현종(顯宗) 5년(1014)에 강감찬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고, 의종(毅宗) 때 자세히 정비되어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에 수록되었고 『고려사』에 그 내용이 잘 전해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직제의와 대동소이한 것인데, 우리 나라 사직제의 원형이 고려중기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시대의 사직은 왕조 개창 직후인 태조(太祖) 3년(1394) 한양천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태종 때 허조 등에 의하여 제의가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정책에 의하여 각 고을의 토지신들을 제사하는 지방의 사직제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토속적인 음사(陰祀)들을 유교식 의례로 정비하여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중기 이후 원구단(圓丘壇)이 폐지된 후에는 사직제에 풍작 기원의 기능이 증대되었는데, 숙종 때부터 새로이 시작된 사직의 기곡제(祈穀祭)는 국가의 일급제사로 중시되었다. 사직제는 국가의 명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로서 왕조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의 중요한 기능은 백성의 재앙을 막고 풍작을 기원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직단 - 21세기 서울 역사문화환경 회복의 열쇠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目次】

1. 머리글
2.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서 사직단의 위치
3. 조선시대 한양에서 사직단의 위치
4. 21세기 서울 역사문화환경회복과 사직단

1. 머리글

동아시아 고대 국가에서 社稷은 宗廟와 함께 국가적인 제사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도성을 건설할 때 왕이 사는 궁전과 함께 사직과 종묘의 위치는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 『周禮』 「고공기」 장인조에 나오는 '左祖右社' 즉 종묘는 궁전의 왼쪽, 사직단은 오른쪽에 둔다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 등에서 지켜왔다.

근대 이후 국가적인 제사는 사라졌고 사직단과 종묘는 단지 역사적인 유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직단이나 종묘의 존재는 역사도시의 문화 유산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도시가 산업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가치는 더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직단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역대 왕조마다 그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조우사의 기본 정신은 지켰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도성의 지형 조건에 맞추어 그 입지 선정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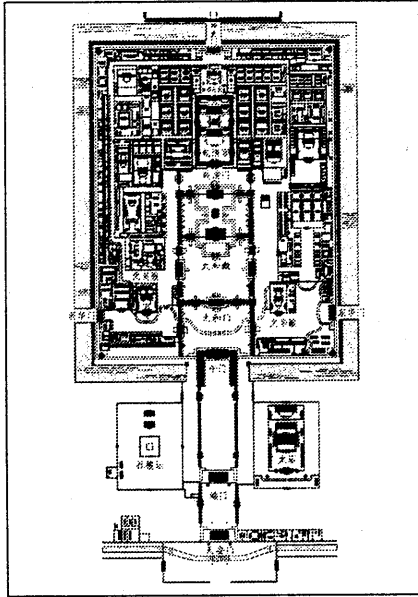
여기서는 조선왕조 사직단이 도성에서 갖는 위치상의 문제를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21세기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사직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서 사직단의 위치

(1) 중국의 사직단

사직의 기원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書經』에 보인다. 『書經』 「太甲上」 편에는 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사직과 종묘에 제사지낸다는 기사가 보이며, 『주례』 「고공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 궁전의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다고 명시하였다.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은 각 왕조의 여건에 따라 그 위치가 다양했으며 각 도성에서 사직단의 위치 역시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중국 도성에서 사직단은 궁성



〈그림-1 자금성과 북경 사직단〉

의 남쪽 오른쪽에 자리잡았으며 왼쪽에는 종묘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西漢의 도성 長安城의 경우, 사직단은 궁성 바깥 남쪽 우측 일대에 별도로 제사용 시설을 한데 모으고 그곳에 사직단과 종묘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직단의 위치가 후대와 같이 궁성 남쪽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른 사례로는 기원 220년에 건설된 魏의 도성 洛陽을 들 수 있다. 낙양의 도성에서 사직과 종묘는 각각 궁성 남쪽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잡았다. 이 전통은 이후 隋에 이어 唐의 도성이었던 長安에서 한층 명확하게 되었다. 당 장안에서 사직과 종묘는 궁성 남쪽, 황성 안에 오른쪽과 왼쪽에 대칭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되어 후대 왕조의 도성에서 답습되었다. 다만 元 大都의 경우에는 사직

과 종묘는 황성 바깥, 황성 동편과 서편에 자리잡아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의 뒤를 이어 명이 건국되면서 사직과 종묘는 다시 궁성 남쪽에 좌우 대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북경이 淸의 도성이 되면서 그대로 지켜졌다.¹⁾

현존하는 중국의 사직단은 바로 청대의 도성 북경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조의 사직단은 자금성으로 알려진 궁성의 남쪽, 천안문의 안쪽에 네모 반듯한 울타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 제도는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기는 위가 5장, 아래가 5장 3척이고 높이가 5척에 네 곳에 계단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²⁾

이상 중국 도성에서 사직단의 위치를 상고해 볼 때, 魏의 낙양성 이래로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궁성 남쪽에서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도성은 전통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택하여 터를 잡고 도성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바둑판식의 가로 세로 직교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성의 중심부 또는 북쪽 중앙에 황성을 두고 그 안에 궁성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 때 사직단과 종묘는 궁성 남쪽, 황성 안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는 위치에 유사한 규모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조성된 것이다. 중국의 도성은 엄격한 대칭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사직단도 이러한 전체 도성의 한 부분으로써 그 위치에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이상의 중국 도성의 사직단 위치에 대해서는 傅熹年外 『中國古代建築』 新世界出版社, 2002에 의함

2) 『大清一統志』 卷1 京師, 社稷壇

동아시아 도성의 사직단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阮) 왕조의 도성 후에(純化)를 들 수 있다. 19세기초에 들어와 새로 조성된 후에는 강변의 평탄한 곳에 자리잡았으며 도성내를 직교하는 도로로 구획하고 도성 남쪽에 황궁을 세웠다. 후에는 시의 경우, 종묘는 황성 내 동쪽에 두었으나 사직단은 황성 바깥 도성의 서쪽 끝에 들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³⁾

(2) 고려 이전의 사직단

우리나라의 사직단은 이미 고구려 때 나타났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고구려 고국양왕 9년(392년)에 國社를 세웠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제2대 남해왕 3년에 시조 박혁거세의 사당을 세워 종묘 제도를 시작했다고 하며, 제36대 혜공왕 때에 와서 5묘의 제도를 정하였고 제36대 선덕왕에 이르러 사직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의 사직단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삼국시대에 국가적인 제사시설로써 사직단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 와서는 제5대 성종 때 와서 종묘와 사직이 이루어졌다. 종묘는 성종 8년에 세워졌고 10년(991년)에 와서 비로소 사직을 세우고 교서를 내렸다. 그 교서에서 이르기를, '社는 토지의 主神이며 땅이 넓어서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封土하여 社를 세움은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稷은 五穀의 長이며 穀이 많으므로 두루 제사지내지 못할 새 그러므로 稷神을 세워서 제사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고려 종묘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려도경』에 동문 밖에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그 후에 몇 차례 위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도성 동쪽이라는 기본적인 위치는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사직단은 그 위치가 성내 서쪽 오공산 아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고려사 문종 6년(1052년) 2월에 사직단을 황성 안의 서쪽에 신축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곳은 오공산 서쪽 기슭에 해당하며, 근세에도 그 부근은 사직동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고려 개경에서 종묘와 사직단은 각각 도성의 동쪽과 서쪽이라는 기본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던 셈이다.

고려의 도성 개경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세워진 도시였다. 그 지형은 중국 도성과 같은 평지가 아니고 굴곡이 많은 불규칙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종묘나 사직단은 중국 도성처럼 궁성 남쪽에 좌우대칭으로 네모 반듯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대칭적인 위치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사직단의 경우에는 도성의 서쪽 산인 오공산을 주산으로 해서 오공산의 산기슭이 이어져 오는 경사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은

3) 『大南一統志』 卷1, 京師

4)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142쪽

중국의 사직단에서 볼 수 없는 고려 사직단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사직단의 실제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본 받아 사단과 직단을 각각 동쪽과 서쪽에 놓고 주변에 네모난 유를 두르고 그 외곽에 담장을 두르는 것이었다. 각 단의 크기는 당의 제도와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사직단 자체의 형태나 규모는 중국의 제도를 답습하였지만, 단이 놓이는 지형조건이 중국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형태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고려 독자적인 건축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짐작된다.

3. 조선시대 한양에서 사직단의 위치

(1) 사직단의 위치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개경에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모셨겠지만, 곧 도성을 漢陽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한양에 새로이 종묘와 사직단을 세웠다. 한양에 사직단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한양 천도 이듬해인 태조4년(1395) 정월이었다. 그해 9월에는 종묘도 완성되었다. 이때 세워진 사직단과 종묘는 각각 도성 동쪽과 서쪽으로, 전통적인 위치 관계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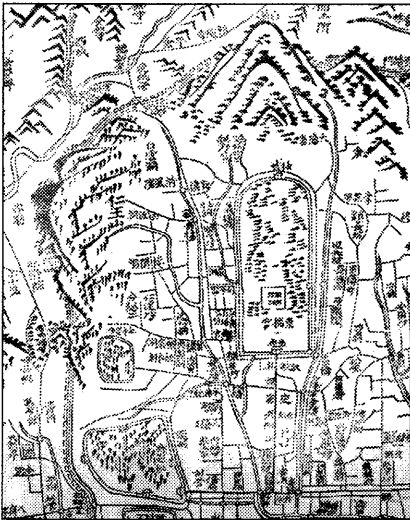
한양은 그 지세가 고려의 수도 개경과 흡사하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점이 같고 서북쪽에 주산이 놓이고 서북 방향에서 시작한 물길이 동쪽으로 흘러 나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였다. 한양의 사직단 위치는 도성 서쪽 산인 인왕산 아래 놓였다. 그것도 고려에서 사직단이 서쪽 산인 오공산 아래 있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사직단을 비롯한 한양의 제사시설들은 중국과 매우 달랐다. 도성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한 건물을 세울 때는 주변 산세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즉 궁궐은 도성의 주산인 백악 아래 남향해서 세웠으며 종묘는 백악 동쪽의 응봉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이어지는 곳에 지었다. 사직단 역시 서쪽 인왕산의 줄기가 내려오는 약간 경사진 곳에 남향해서 조성했다. 각각의 시설들은 그 뒤에 있는 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건물이 계획되고 조성되었다. 이 점은 평지에서 기하학적인 대칭을 중시한 중국의 도성 내 건물들과 대조되는 점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한양의 건축물들이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양 건축물의 고유한 특징은 고려 개경의 건축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개경의 건축물들은 원칙적으로는 고대 중국의 경전을 따랐지만 개개 건물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경사가 많은 개경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었으며, 한양의 건축은 바로 이러한 개경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 한양의 사직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양 사직단의 그 기본적인 형태는 『국조오례의』에 잘 설명되어 있다.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마련하는데 각단은 정방형 평면이고 한 변은 영조척으로 2장5척이다. 단의 높이는 3자이며⁵⁾ 양단의 사방 중앙에는 디딤돌이 세 벌로 된 계단을 두었다. 한양 사직단의 규모는 중국이나 고려 사직단에 비하여 약간 작다. 즉, 중국의 경우, 대체로 단의 한 변 길이를 5장으로 삼고 단의 높이를 5자로 하였고⁶⁾ 고려의 사직단은 한 변이 5장이고 높이는 3자 6치로 하였다.⁷⁾ 여기 비하여 한양의 사직단은 중국이나 고려보다 크거나 높이를 약간 작게 잡은 것이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단묘의 규모를 제후국의 격식에 맞추려고 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한양 사직단 양 단의 둘레에는 낮은 담장을 둘렀는데 이를 유라고 불렀다. 유의 평면도 정방형이다. 그 일변의 길이는 25보라고 하였다. 유외 사방 중앙에 문을 두어 유문이라고 하였다. 유외 바깥쪽에 담장을 두르고 사방에 홍살문을 세웠다.

담장 바깥으로는 제사와 관련한 여러 부속 시설들이 있었는데 『사직서의궐』의 그림에 묘사된 모습을 보면, 외곽 울타리 남쪽 중앙의 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안향청을 중심으로 한 일곽이 있고 그 반대쪽에 악공청이 있으며 사직단 담장 건너편에는 우물과 재생정 등의 건물이 한 무리를 이룬 모습이다.

사직단의 전체적인 건물구성을 보면, 인왕산 아래 자리잡은 지형조건을 고려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수선전도』와 같은 옛 지도를 보면, 사직단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광화문 앞 6조거리 우측에 있는 첫 번째 시설인 예조를 지나서 직각으로 꺾여서 곧바로 난 길을 이용하게 된다. 이 길의 정면 끝에 사직단 정문이 서 있으며 그 뒤에 사직단이 전개되고 다시 그 뒤로는 인왕산의 우람한 형세가 배경을 이룬다.



〈그림-2 수선전도에 묘사된 서울사직단 주변〉

사직단 자체의 경내 건물배치에 대해서는 『사직서의궐』의 「사직단전도」와 같은 그림자료 외에 1915년 및 1921년에 제작된 지형도가 참고가 된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사직단의 양단은 정남향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동남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성 동쪽에 있는 종묘의 정전이 역시 정남향이 아니고 약간 서남향을 한 것과 대조된다. 즉, 사직단과 종묘는 궁궐인 경복궁을 중심에 두고 서로 좌향을 틀어서 도성 안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사직단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 안향청을 비롯한 건물군이 있고, 곧바로 진입로가 나서 사직단 담장의 동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담장 북쪽 중앙에 있는 문

5) 사직단의 높이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조오례의』 서례의 치수를 따랐다.

6) 『송사』, 권102, 지 제55, 예5

7) 『고려사』 권59, 지13, 예

으로 나서면 가장 깊은 곳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일군의 건물들이 있는데 이곳은 재생정을 비롯한 부속시설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좌향은 사단과 직단의 좌향과 달리 완전히 동향을 하고 있다. 후방의 부속시설의 좌향이 앞의 건물과 좌향을 달리하는 이유는 역시 지세에 순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대한 자연 지형에 손을 대지 않고 지형에 맞추어 건물을 배치하려는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결국 사직단 건물 구성의 세부는 인왕산과 그 아래 자연 지형에 맞추어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점이 역시 중국에서 볼 수 없는 한양 사직단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다.

(2) 인왕산과 사직단

도성 한양에서 사직단이 갖는 위치 관계를 살펴볼 때, 사직단이 도성 서쪽 인왕산을 뒤에 두고 그 기슭에 남향해서 자리잡은 점이 주목된다. 인왕산은 도성의 우백호에 해당되는 산으로 산이 높고 그 형세가 우람하여 한양에 도성을 정할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던 산이었다. 동편 좌청룡에 해당하는 타락산이 형세가 빈약한 것과 대조되는 산이다.

인왕산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도성의 중요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그 후에도 종종 술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성을 한양으로 정하려고 할 때 태조 이성계는 승려 無學에게 도성의 지세를 물은즉 무학은 인왕산이 진을 이루고 있으며 백악과 남산이 좌우의 용호의 형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은 인왕산을 도성의 주산으로 삼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는데, 여기 대해서 정도전은 제왕은 남면하여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였고 결국 도성의 주산은 백악으로 결정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경지략』에 전하는 것인데, 『한경지략』의 저자는 끝에 토를 달아 말하기를, 무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2백년 후에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2백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무학의 말을 보는 능력에 놀랐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조선 건국 초기 사람들에게 인왕산의 산세나 그 주변의 형세가 범상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초에 들어와 광해군이 즉위하자 왕의 측근에 있던 술사들 가운데는 仁王의 글자가 길한 것이고 그 아래 궁궐을 지으면 길운이 따를 것이라는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들이 있다. 즉, 광해군 8년에 술사 性智는

‘인왕산은 돌산으로 몹시 기이하게 솟아 있으며, 또 인왕이란 두 글자가 바로 길한 참언이다. 그러므로 만약 王者가 그곳에 살 경우 국가의 운수를 늘릴 수 있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

고 말하고 또

‘국초에 사직단의 터를 이곳에 잡은 것은 당시의 術士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그 터에다 궁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임금이 편안하게 지내면 사직 역시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옮겨야지 무슨 의심을 둘 것이 있겠는가.’

고 하였다는 기사가 『광해군일기』에 실려있다.⁸⁾

특히 나중의 기사에서는 사직단을 옮겨서라도 인왕산 아래 궁궐을 짓기를 청하는 대목까지 보여 인왕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광해군은 이들 술사들의 말을 따라 실제로 사직단 동편에 仁慶宮이라는 장대한 궁궐을 지었으며 다시 인왕산의 남쪽 줄기가 뺏은 곳에 慶德宮이라는 새 궁궐을 지었다. 경덕궁 터는 본래 왕의 이복형제인 정원군의 집이 있던 곳인데, 그 집터를 빼앗아 궁을 지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하자 인경궁은 곧 철거당하고 경덕궁 만 그대로 남아서 후에 경희궁이란 이름으로 궁궐로 활용되게 되었다.

인왕산은 왕실에서 큰 관심을 기울인 산이었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 뛰어난 산세와 골짜기의 아름다운 경승을 아끼던 곳이었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인왕산에는 영천이라는 샘이 있어 돌 사이에서 샘이 솟으며 청풍계, 옥류동 같은 경승이 있다고 하였다. 또 서울을 관통하는 關川의 발원지도 인왕산이었다. 같은 책에는 지금 청계천으로 부르는 개천의 발원이 인왕산 백운동이라고 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왕산 동쪽과 사직단 남쪽에서 시작하는 물도 개천의 원류가 된다고 적었다.

이처럼 인왕산은 단순히 도성을 지키는 우백호의 구실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성 주민의 삶과 밀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사직단이 인왕산의 줄기를 이어 세워진 점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4. 21세기 서울 역사문화환경회복과 사직단

(1) 20세기 사직단의 훼손과 복원

사직단의 제사는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 동안 國社로 불리던 서울의 사직단은 太社로 승격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위패도 고쳤다. 이후에도 사직단에서는 정기적인 제례는 물론 기우제 등이 치러졌다. 그러나 왕조의 상징이었던 사직단의 제사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고 사

8) 『광해군일기』 권101 광해군8년 3월 갑오

9) 서울특별시,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기본계획 보고서』1985



〈그림-3 1921년 제작 지형도의 사직단 주변모습
(조선총독부작제 『만분지일 지형도집성』에서 발췌)〉

직단은 제사 의식이 사라진 빈터로 남게 되었다. 제사가 철폐된 이후에도 1920년대 초까지는 서울사직단 주변은 큰 변화 없이 본래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그 후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주변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즉, 1922년 사직단과 인접지를 합한 66,619평이 경성부로 이관되어서 도로 개설 및 공원조성을 위한 제 시설이 들어오고 사직단의 부속시설이 철거되었다.⁹⁾ 또 단 서쪽 옛 등과정이 있던 터에는 경희궁 북쪽에 있던 황학정이 이전되어 활터로 이용되었다. 1932년에는 대지 일부가 교육시설로 잘려나가는 변화가 따랐다.

광복 이후에도 서울사직단 터의 훼손은 계속되었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정문이 본래 위치에서 14m가량 뒤로 이축 되었으며 70년대에는

도서관의 신축, 수영장 개설 등으로 사직단의 경역은 점차 축소되고 황폐화되었다.

다행이라면, 1980년대 말에 와서 그 동안 방치되어왔던 사직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양단 주변의 유와 담장이 복원된 점을 들 수 있다. 유와 담장이 복원되고 홍살문이 다시 세워짐으로 해서 사직단이 가지고 있던 본래 모습의 일부만이라도 되살려진 것은 그의 의가 적지 않다. 또한 社稷大祭가 복구되고 2000년에는 제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될 수 있었던 점도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사직단 자체는 아직도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주변은 놀이터와 각종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실상이다.

(2) 21세기 역사문화환경 회복과 사직단

서울 역사문화환경의 회복이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자주 접하게 되는 어구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1984년 서울 정도 6백주년의 성대한 사업이 치러지고 나서 그 관심은 더 높아졌다. 서울의 궁전들의 복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옥마을이 조성되는가 하더니 최근에는 청계천의 복원이라는 원대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은 문화유적의 복원이나 정비가 단일 유적에 대한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문화환경 차원에서 접근되고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만의 추세가 아니고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중국에서는 西安과 北京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고 일본

에서는 천도 1200주년을 기념한 교오토오의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치러졌으며 베트남의 후에서 역시 유네스코의 지원 아래 활발한 도시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각 역사 도시는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안은 고대 당 제국의 도시규범을, 북경은 근세 중화제국의 장대한 도시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오토오는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불교 사원이 이 도시의 유구한 문화를 빛내주고 있고 후에서는 유교적 규범이 도시형태에 잘 드러나 있으면서 그 유적이 거의 원형을 잃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6백년 역사를 지닌 서울은 이들 동아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북쪽의 북악, 동과 서의 낙산과 인왕산, 남쪽의 남산으로 둘러싸여 완벽한 분지를 이룬 서울의 자연경관은 서울만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서울의 중요한 건축물들은 이 산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6백년의 세월을 이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금세기에 들어와 이루어진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들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가로막아 왔으며 산기슭을 파헤쳐 왔다. 다행이라면 아직도 북악산과 인왕산이 비교적 그 자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이 두 산의 형세가 제아무리 인간의 파괴에도 버티어낼 만한 웅건한 산세를 지니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지금 북악산은 그 아래 경복궁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하나의 커다란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인왕산 아래는 산밑에까지 집들이 들어차서 역사적인 경관을 이끌어내는데 미흡해 보인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사직단이 자리잡고 있고 또 그 오른쪽으로 경희궁의 넓은 녹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왕산과 그 아래 문화공간을 하나의 틀로 엮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악산과 경복궁, 인왕산과 사직단 경희궁이 상호 상승효과를 내어 과연 서울이 6백년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역사도시라는 점을 잘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왕산과 사직단은 현 시점에서 서울 역사문화환경 회복의 열쇠가 된다.

이 열쇠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는 사직단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단 뒤편 놀이터 자리에 있었던 부속시설들을 복원하고 주변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이 있는 자리를 최대한 녹지로 환원시켜 사직단의 원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직단에서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녹지대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환경의 회복은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정을 지닌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꾸준히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서울 사직단의 환경 정비는 바로 그 첫걸음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持續性的 念願, 聖性的 回復

고 주 석
(오이코스 대표)

【目次】

1. 사직단 환경정비의 중요성
2. 사직공원의 개요
3. 사직단의 주변환경분석, 훼손현황 및 원인
4. 사직단 환경정비의 구상
5. 개선안의 탐구

I. 사직단 환경정비의 중요성

I-1. 목적

- 사직단 환경정비의 가치, 의미,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 사직단 환경정비의 방향에 대한 개념적 구상 안을 제시하여
- 시민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 시공,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 지침을 제안하여
- 중앙 정부에서 예산의 책정과 관련 부처의 협력을 얻어서 상세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I-2. 필요성

- (1) 공원으로써의 정비에 의한 주변 환경의 세속화
- (2) 문화재 정비의 한계성(1985년)
 - 구조물 위주의 정비
 - 주변 환경의 정비 부재
 - 배후 환경의 정비 부재
 - 체험성, 장소성에 입각한 정비 결여
 - 공원이란 명목으로 자연과 문화재의 훼손:
사직단의 풍수(지세, 지형, 風, 水, 氣, 분위기등) 및 원래의 체험성, 장소성의 복원 필요

I-3. 현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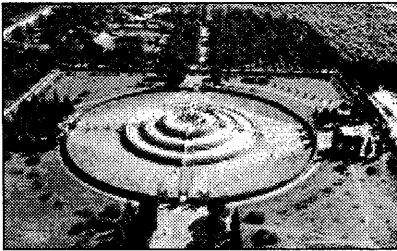
- 국가의번영,국토의 생산성을 기원하는 정신문화 및 국체의 계승
- 지속성, 환경성이 강조되는 21C의 경제, 문화, 사회의 패러다임의 연계, 국민적 환경, 국토, 농토 보존 운동의 매체로써의 가치
- 산업화,도시화로 파괴된 자연, 문화 환경의 복원의 상징적 가치
-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 및 도심 정비 계획과 더불어 문화관광부의 관광루트 개발 및 Place Marketing에 기여하는, 문화 환경 조성에 연계되는 사업
- 도심에 위치하고, 인왕산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용밀도가 특별그룹, 조직에 의한 공간남용 (국궁, 단군, 사직동 조기회, 주차 등)
- 성지의 인식과 자연, 문화 보호의식 및 정책 부족으로 계속해서 관에 의해 훼손될 전망
(예: 국궁전수관의 건설 및 체육공원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 2002. 8)

II. 사직공원의 개요

I-1.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번지 일대
- 면적: 55,900㎡(계획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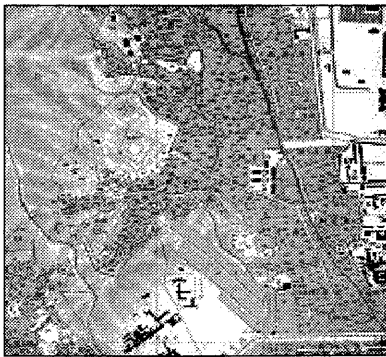
I-2. 사직단의 기원 및 역사



- 사직(社稷)은 토지의 주인인 사(社)와 오곡의 어른인 직(稷)을 말함이며 이를 제사하는 단(壇)을 만들어 사직단(社稷壇)이라 하였다.
- 사(社)는 본래 중국에서 일정한 지역의 혈족집단이 행하던 중심적 제사의 대상이었던 것이나 혈연사회가 붕괴되면서 토지신(土地神), 농업신(農業神)으로 받들게 되고 여기에 곡물신(穀物神)인 직(稷)을 합하여 사직이라 이르게 되었다.
- 전국시대(BC 453)이후에 天,地,人의 사상이 생기면서 사와 직은 하나로 합하여 토지, 곡물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으로 받아들여져 이로부터 천자가 주재하는 중요한 국가적 제사의 하나가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사직을 받드는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며 사직의 제례는 매년 중춘(仲春), 중추(仲秋), 납일(臘日)의 대향사(大享祀)와 정월의 기곡제(祈穀祭), 가을 때의 기우제(祈雨祭) 등이 있었는데 대향사 때에는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게 되었다.

I-3. 사직단 환경의 장소성 및 체험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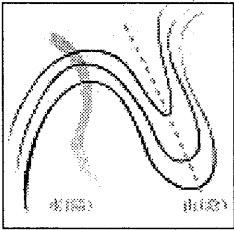
■ 사직단 장소성 회복의 관건



<경성시가도(1927년)에 나타난 사직단>

사직단은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이 멀리 보이고 뒤로는 우백호인 인왕산이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사직단은 종묘와 다른 풍수적, 생태적 입지이다. 전자는 양택풍수, 후자는 음택풍수에 비유될 정도로 사직단은 낮은 능선사이의 계곡을 뒤로하고 배후산과 연계되어 있고 종묘는 능선 위에 입지하고 궁궐(창덕궁, 창경궁)을 배후로 연결되어 있다.

또 사직단은 기우, 기곡의 제단으로 비옥한 땅(신)(地神)에 연계되어 농경문화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문화전통의 핵심적 상징일 뿐 아니라 현대에 있어 생태적, 환경의 윤리에 연계되고 생태계의 건강과 생산성 확보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묘의 회복이 배



후 궁궐과 지세에 연결되는 것이 관건이라면 사직단의 회복은 배후 녹지의 훼손 정비와 배후 녹지와와의 보행 및 山, 風, 水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배후차도, 종로도서관을 배제한 능선의 회복과 국궁전수관, 기타시설로 파괴된 계곡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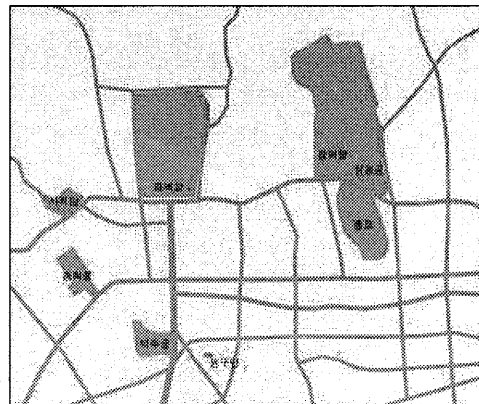
■ 사직단 체험성 회복의 관건

구조물의 복원뿐 아니라 사직단 본래의 분위기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지로서의 정숙성, 정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소음, 시각, 기타의 시설, 구조물, 조경 등의 오염을 배제하여야 하고 제사환경으로서의 격식성이 강조되고 절제된 설계가 필요하다. 또 원래 사직단 접근로가 현재의 사직문 맞은편의 도로인 것을 감안하여 이 거리에서의 제례적 접근과 이를 위한 사직문 앞의 횡단 보도 포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직단의 존재인식과 접근성

사직단은 현재 남측의 대로에 의해 소음 피해가 심할 뿐 아니라 동서 방향의 주 통과 도로에서 인지가 되지 않아 많은 도시민이 그 앞을 지나면서도 사직단의 존재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사직의 의미를 생각할 기회도 없으며, 또 찾아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성(Place brand)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정문과 사직단 남측에 궁궐담을 설치하여 소음 차단은 물론 장소의 인지성(Edge 나 Landmark에 의한)을 높이고, 또 정문 앞을 차별화된 재료로 넓게 포장하고 맞은편 신문로에도 역사적 가로경관으로 회복하여 본래의 사직단의 접근 체험을 (신문로와 사직문의 시각축, 그리고 배후 인왕산 및 북악산의 스카이라인과 연결) 확보하여 사직단의 존재 인식을 넓히고 도시의 문화 녹지 시설과 Landmark의 기능을 겸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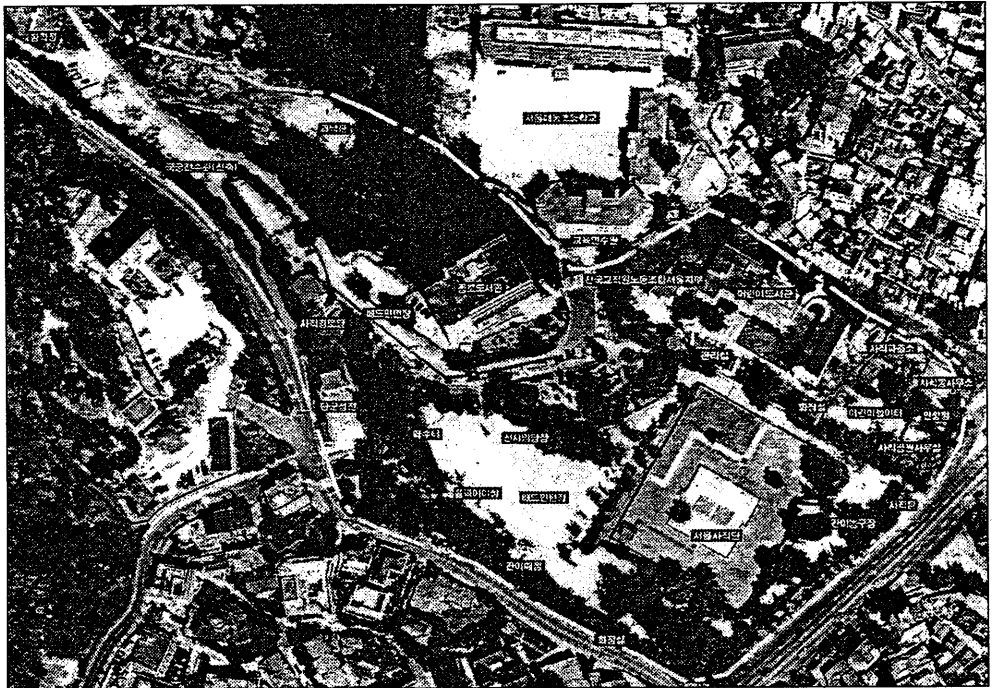
■ 사직단과 주변 문화재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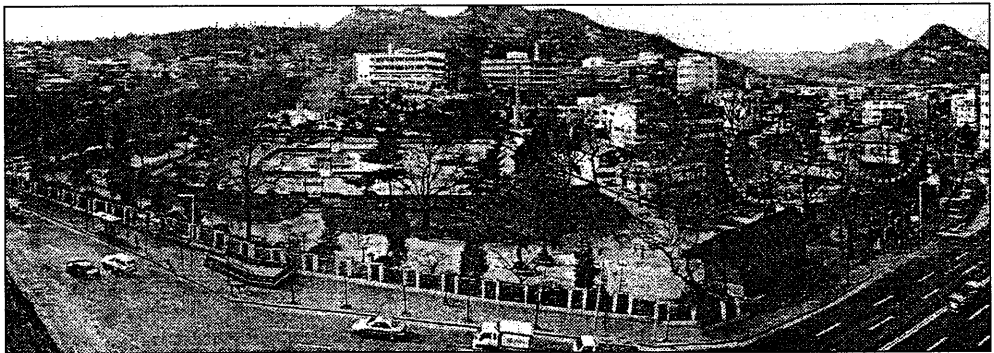
Ⅲ. 사직단의 주변환경분석, 훼손현황 및 원인

Ⅲ-1. 주변환경 및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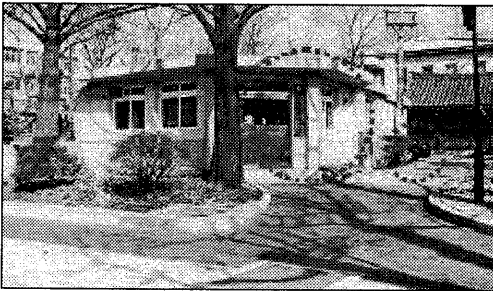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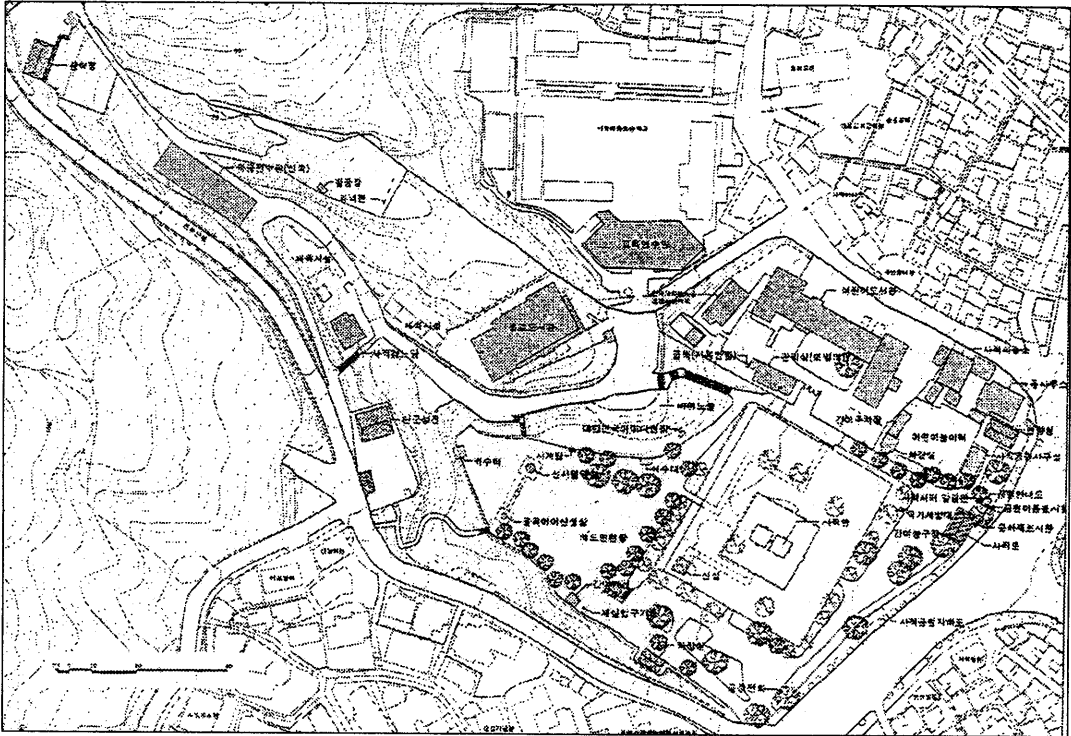
■ 항공사진(200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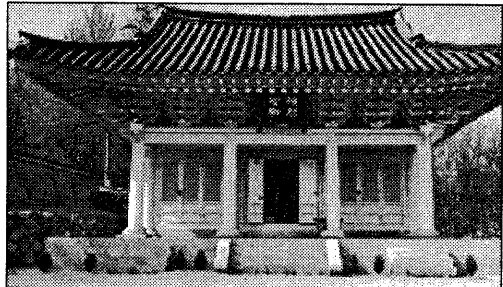
과잉 건설(건물, 도로, 대지조성)로 인한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과대한 건물, 잘못 배치된 건물,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건물)---> 철거 또는 입면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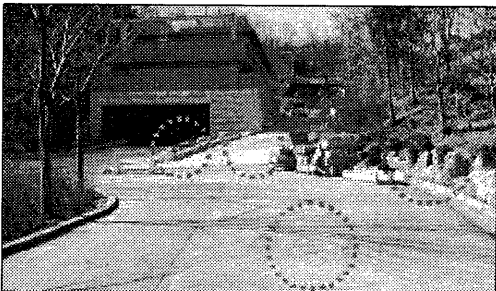
■ 현황도 (이 지도는 서울시 수치지도를 토대로 현장사진촬영 및 조사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음 20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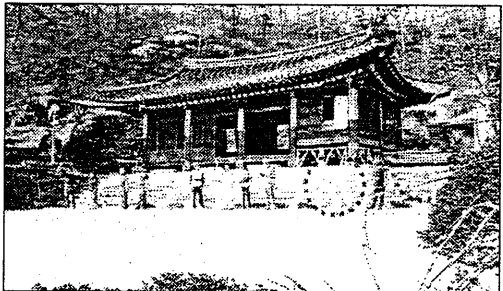
안향청과 조화되지 않는 공원관리사무소는 철거 후 인근도서관과 연계하여 배치시키는 방법을 고려한다. 후면의 주차도 제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1960년대에 이전되어 설치된 단군신전은 사직단과는 무관한 시설이며, 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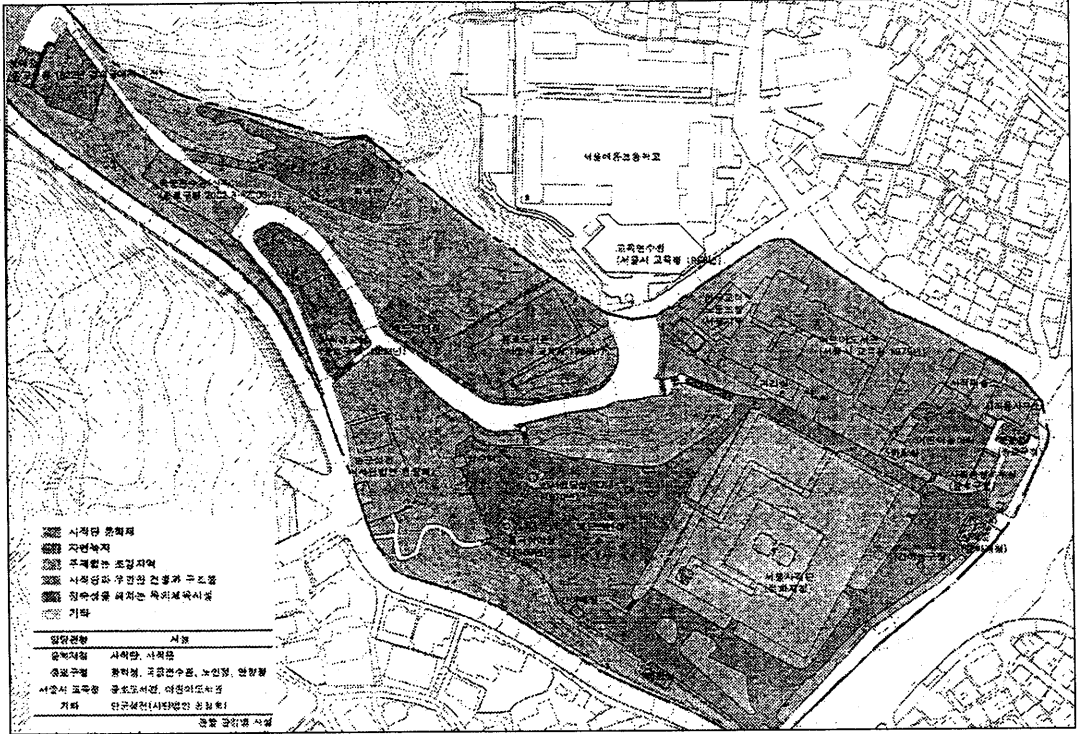


인왕산의 골짜기를 막고 들어선 콘크리트 노출의 건물(국공전수관)을 식재로 치폐하고, 바닥의 과도한 콘크리트 면적을 줄이기 위해 포장을 제한하여 녹지공간과 수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용하는 문화재로 황학정을 개선하고,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제거 또는 대체한다. 주위의 담장을 철거하여 식재를 통해 동선통제 및 공간구획을 한다. 현재의 계단은 넓이를 축소하여 전통조경기법으로 보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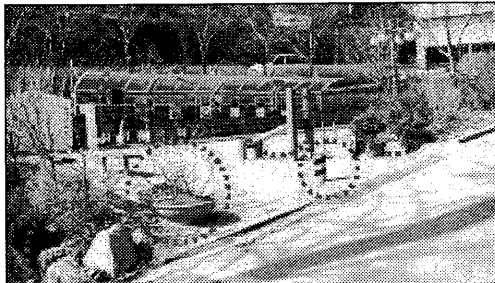
■ 토지 이용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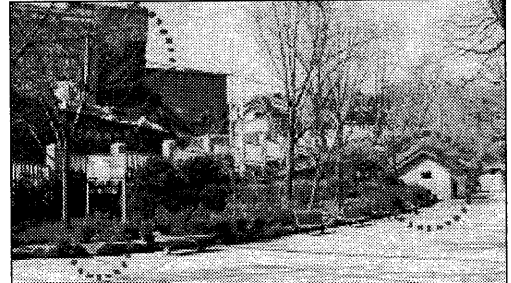
시각단과 분리, 절단된 시각문을 포장에 이용하여 연결성을 주도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농구장보다 의미있고 조용한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고공과 어울리는 조명과 시설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후면의 건물을 차폐하는 가로수를 식재한다. 펜스를 제거하고 접근이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임시로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는 철거하고 식수대는 활용도를 높여 수경시설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곳을 조용하고 정숙한 공간이 되도록 재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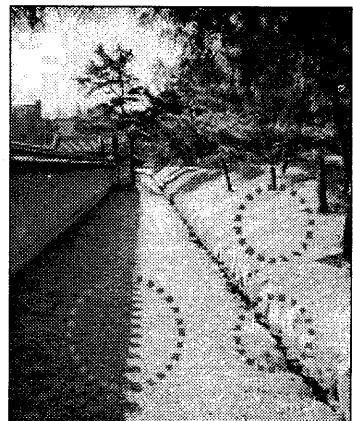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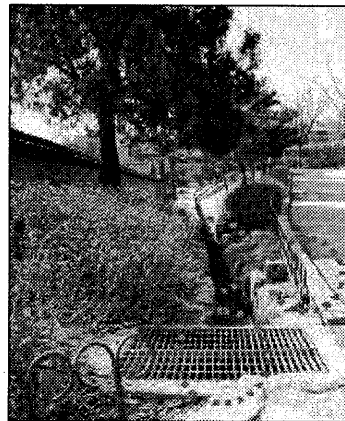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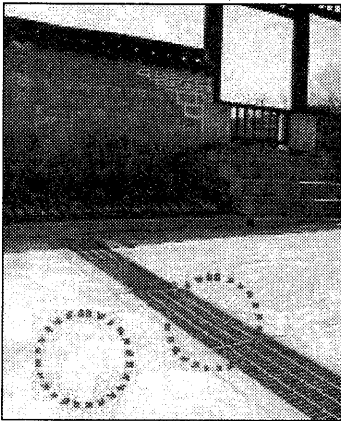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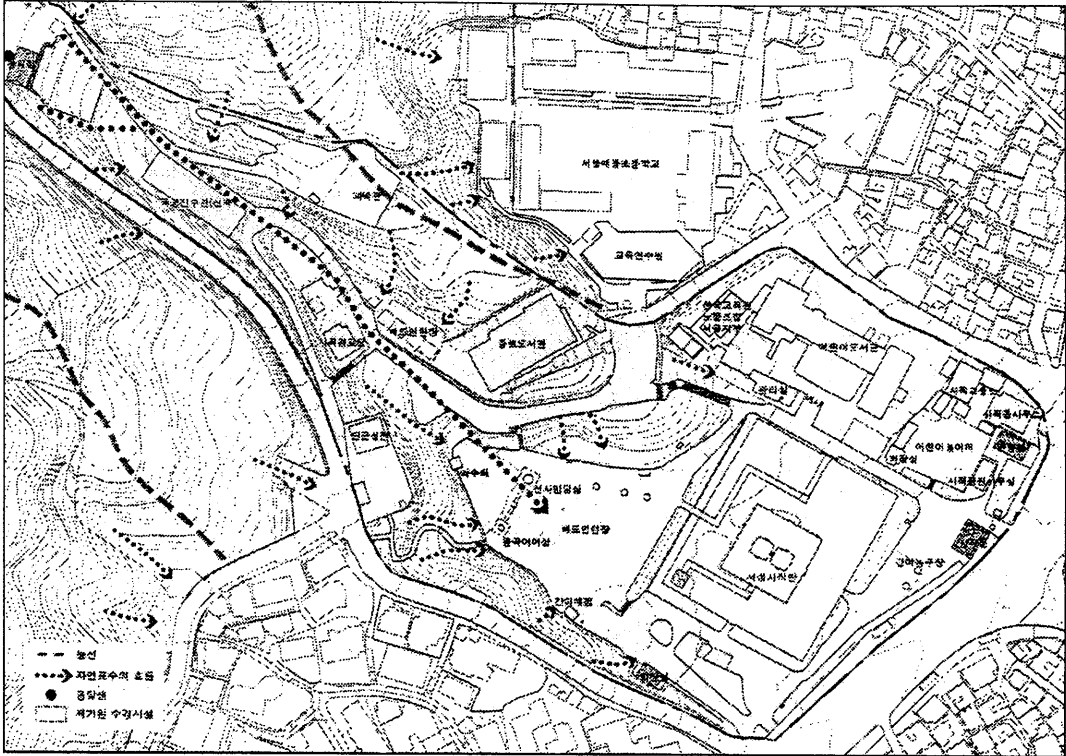


도시적인 시설(파도한 사인, 플라스틱 꽃박스, 금속과 유리로 된 휴게시설물, 조명등)을 배제하고 정숙한 시설물로 대체한다. 수로는 개방하여 전통적으로 처리하고, 산책로와 연결되는 조용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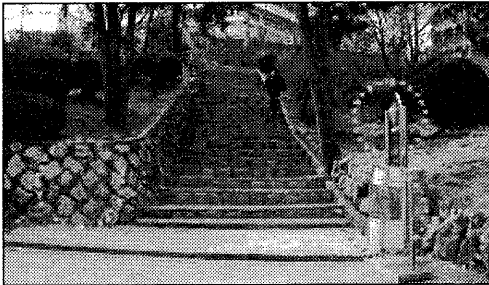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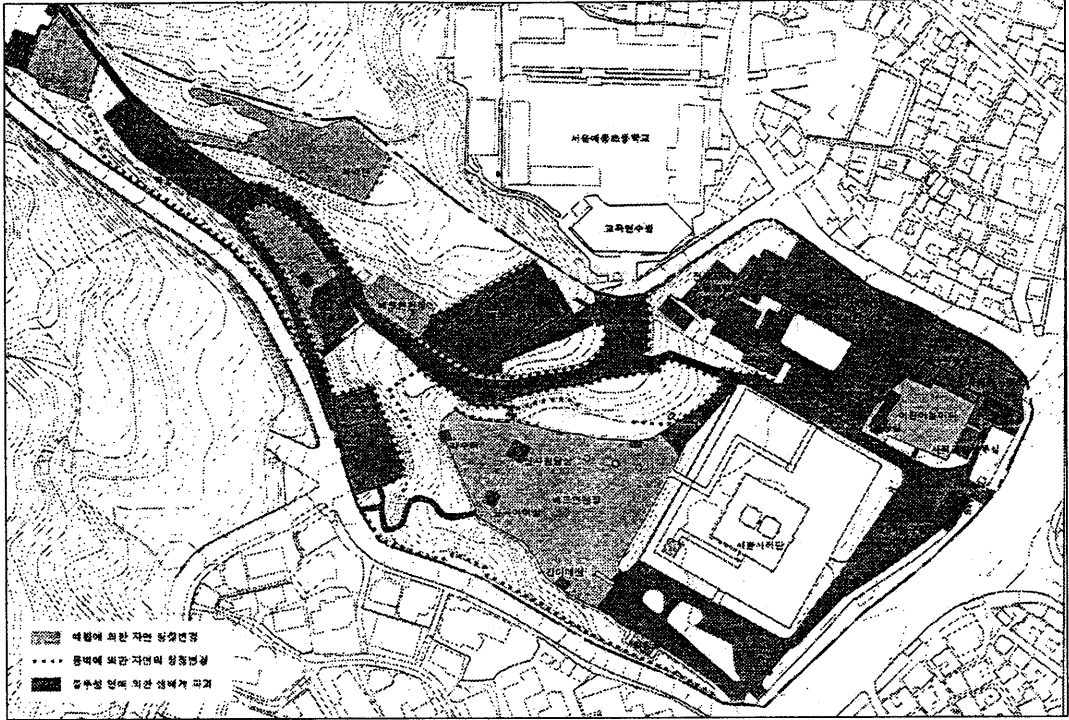
외부의 건물과 담장을 차폐하는 가로수를 식재한다. 내부 녹지공간의 증가를 통해 조용한 휴식공간으로 전환한다. 화단은 정원식, 일본식 조경기법을 제거하고 전통 배수로 기법을 도입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수문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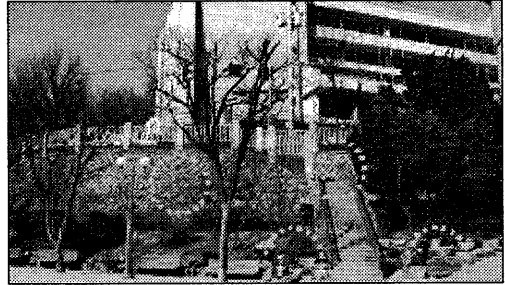


전통배수로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우선적으로 스틸그레이팅을 제거하고 수로를 노출시키도록 한다. 재료 또한 돌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닌 장대석을 이용한 쌓기로 정돈된 느낌을 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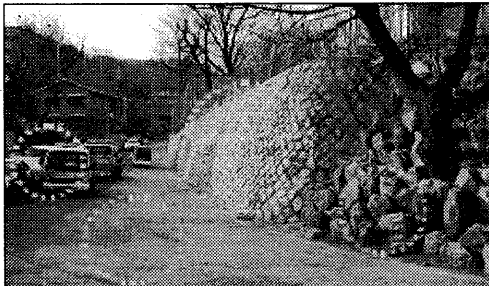
■ 지형훼손현황



지형변경으로 인해 훼손된 벽에 한국전통의 화계 또는 장대석 기법을 도입하도록 한다. 인공전지로 인해 훼손된 관목을 정리하고 풍부한 식생이 존재하도록 잔디를 제거한다. 또한 빛을 반사하는 금속성 구조물들도 제거한다.



형질변경에 의해 훼손된 지형을 녹화시키고 일본식 돌 쌓기 기법이 아닌 전통 화계식 정원을 만들도록 한다. 무질서하고 도시적인 시설물 및 구조물을 정리하고 토양개선으로 식재 환경을 개선한다. 종로도서관의 입면처단이 필요하다.



경관을 훼손하는 옹벽구조물을 식재를 통해 치폐하고, 일본식 돌쌓기 기법을 철거한다. 주차를 통제하고 인왕산의 지형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신척로가 있는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옹벽으로 훼손된 아름다운 자연암반을 활용, 노출시켜 종로 도서관으로 인해 단절된 인왕산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 준비한다.

IV. 사직단 환경정비의 구상

IV-1. 환경정비의 기본적 개념과 전략

■ 주요 이슈

사직단의 의미 재해석

- 소실된 문화재 복원을 통한 역사적 장소로 볼 것인가?
- 21세기 도시민의 정신적이고 정숙한 휴식장소로 볼 것인가?

주변건물 및 외부공간을 철거시 고려사항

- :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단군성전, 국궁전수관, 황학정, 노인정, 체육시설 등
- 사직단과 연관되는 지세 및 지형을 어느정도 차단하고 있는가?
 - 사직단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가?

사직단의 경계 (절대보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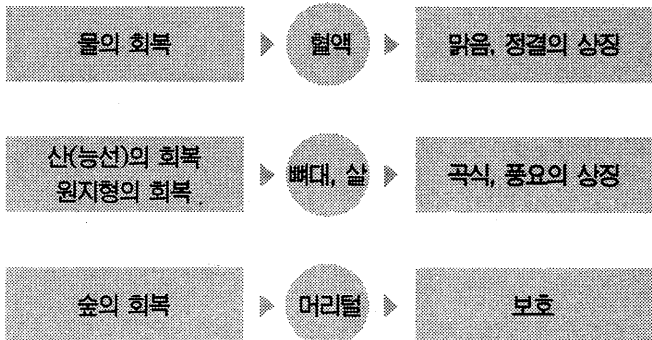
- 사직단과 공원의 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사직단의 진입은 어디로 할 것인가?
- 공원의 진입은 어디로 할 것인가?

■ 환경정비의 기본 개념

장소성의 회복

- 성지와 회음(會陰) 공간성 확보
- 명당으로서의 분위기 복원
- 물질적 공간에서 정신적 공간으로
- 지지분한 공간에서 정돈된, 정숙한 장소로
- 시끄러운 공간에서 조용한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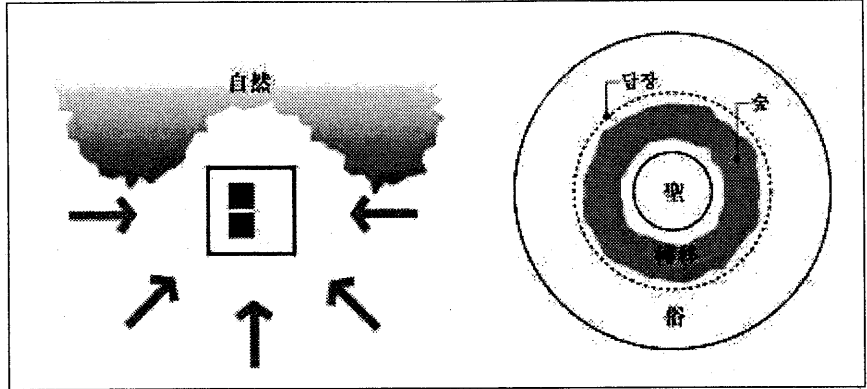
경관회복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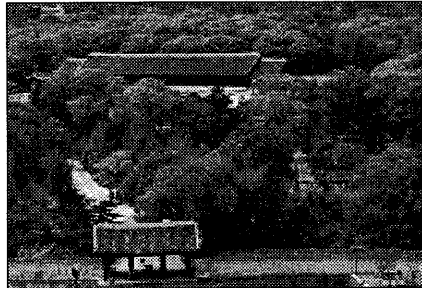
■ 구상의 기본 방향

장소성의 구현 (公園에서 聖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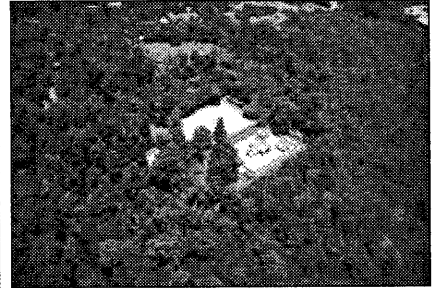
- 공간의 전이(Gradation) 연출성(Sacred, Inside) - 전이공간(Transition) - 속(Secular, Outside)



· 무질서한 주변에 노출된 공간에서 보호된 공간



수림에 둘러 쌓여진 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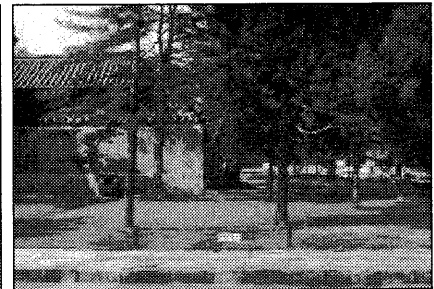


산림으로 보호된 일본의 이세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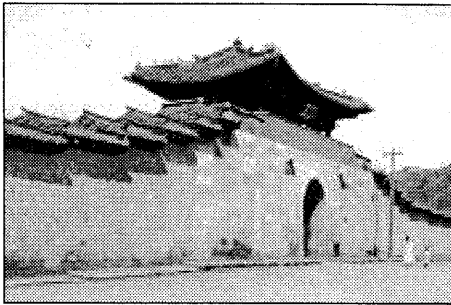
· 높은 담을 활용한 소음 차단과 영역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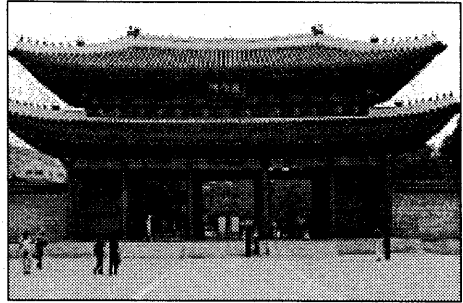
창덕궁의 돌담길



· 진입부 처리의 명료화



대문의 역할을 하는 광화문



창경궁의 홍화문

· 차량의 통제를 통한 보행자 위주의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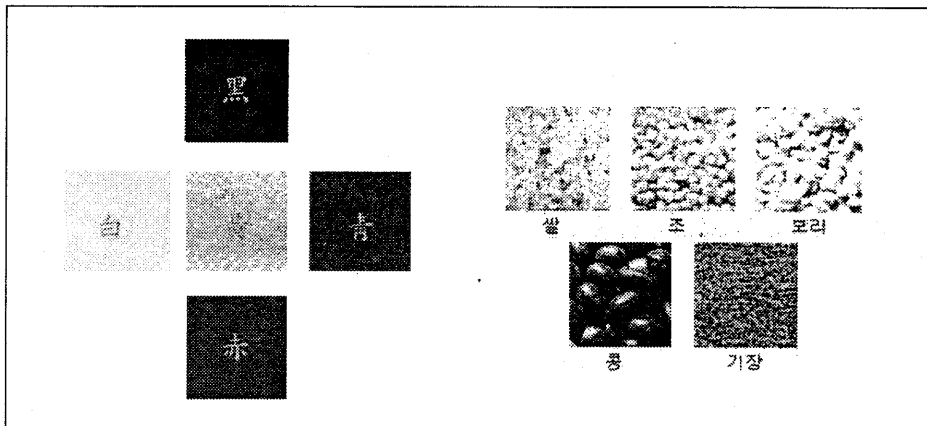


중국의 수치우 궁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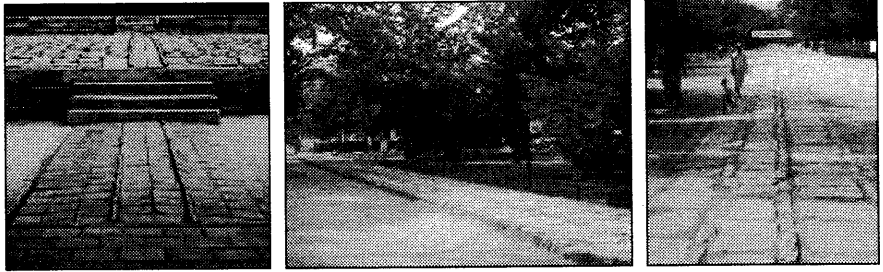
· 다섯가지 토양과 오곡의 상징성 구현:

고층에 의한 사직단 내부의 복원 및 설계요소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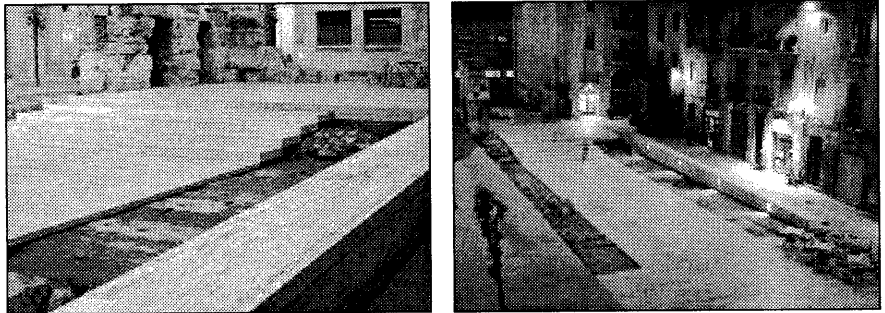
방위에 따른 다섯가지 색 토양과 오곡의 종류

· 동선의 격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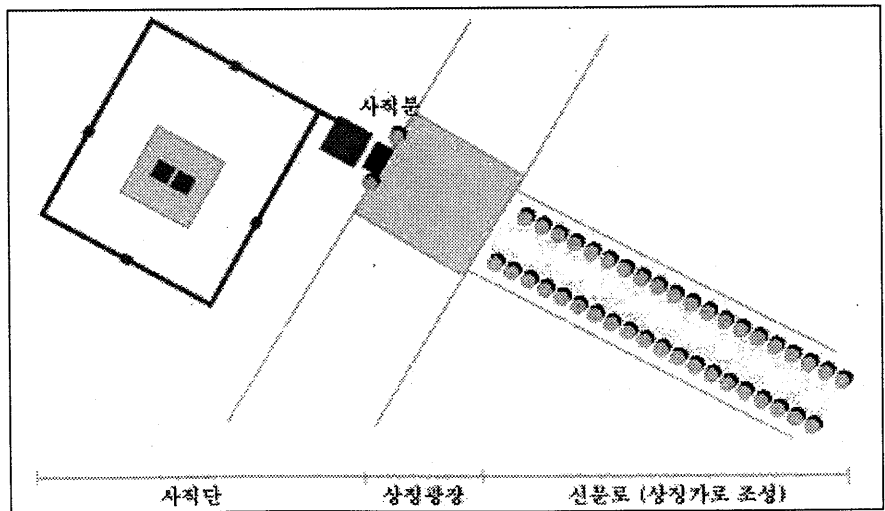
중요의 포장 패턴 및 기법

· 유적 패턴을 살린 보행도로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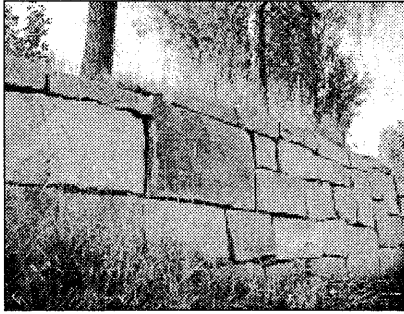


이태리 타라고나 역사도시 센터

· 예전 진입로(신문로)의 상징성 부여



· 역사성과 생태성을 고려한 석벽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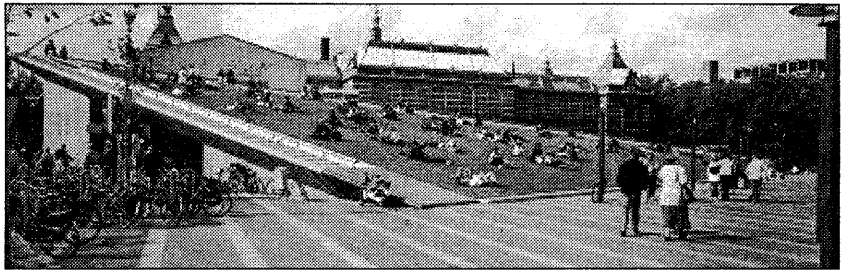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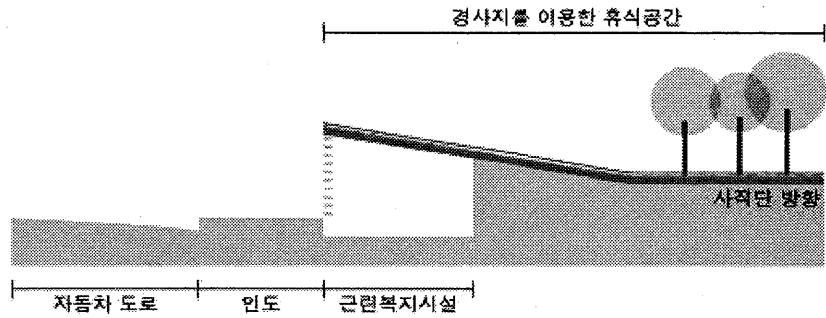


노르웨이 센트럴 공항 주변 석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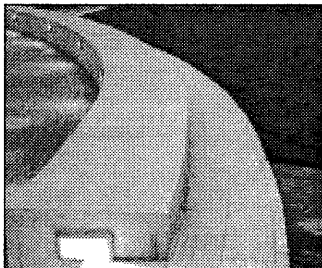
북한산성의 성벽

· 가로벽 및 소음차단벽으로써의 건물 도입



암스테르담 박물관

· 다용도 시설물: 조명이 설치된 앉음벽과 벽을 이용한 벤치



영국 맨체스터 피카딜리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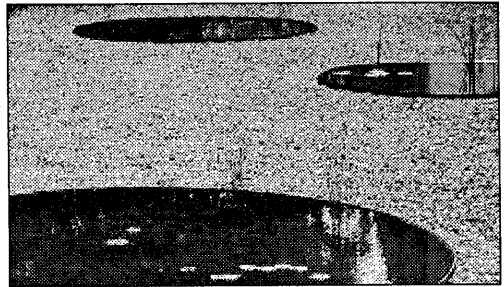


· 콘크리트 담장 구역 내 군식 (경제성을 고려한 방안)



스위스 윈터채

· 수경요소의 도입: 건강의 상징, 수변 식생 및 비오톱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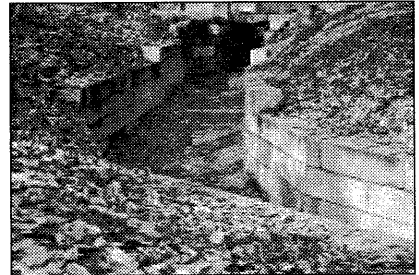
비원의 관림정 일대와 스위스 추미콘 정원

경관 회복 (지형, 식생, 수문)

- 모든 회복은 환경의 생태적인 회복과 도시의 기능과 문화 환경개선에 기여 함: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문화재
- 山(노출된 岩)과 水(자연개울)을 훼손, 절단에서 생태적 장소의 일체성과 건강한 회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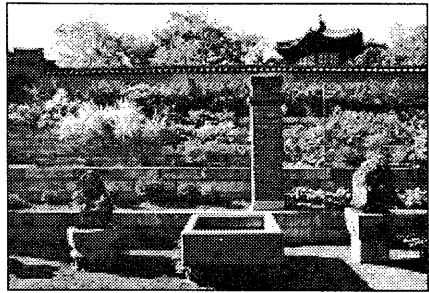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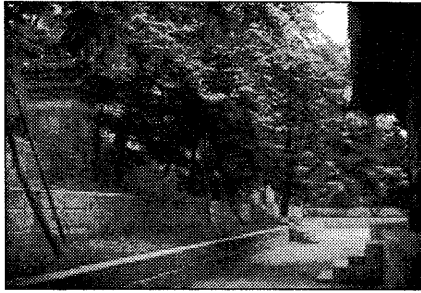


창덕궁의 자연스러운 돌 계단



창덕궁의 장대석 쌓기를 통한 슬로프 조절

· 일본식 조잡한 장식 조경기법을 한국적, 현대적, 생태적 기법으로 전환



창덕궁의 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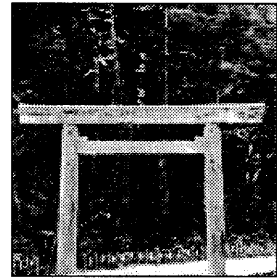
· 식재의 고증적, 생태적 회복



창덕궁의 다양한 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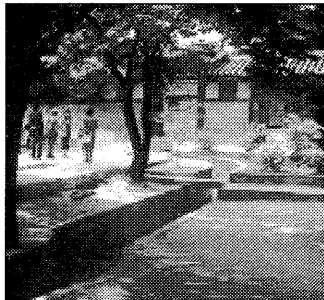


경주계림은 벌목이 금지된 장소로 다양한 식생공존



일본 이세신궁의 잘 보존된 수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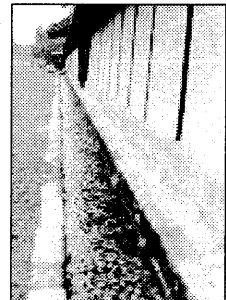
· 수문관리 및 배수로의 표현



창덕궁의 배수로



창덕궁의 배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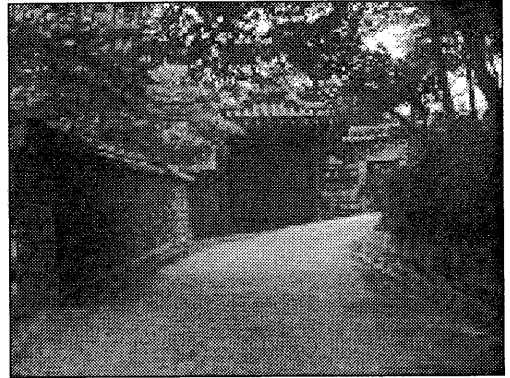


일본 교토가로의 배수로

· 불투수성 포장의 제거



일본 이세신궁의 자갈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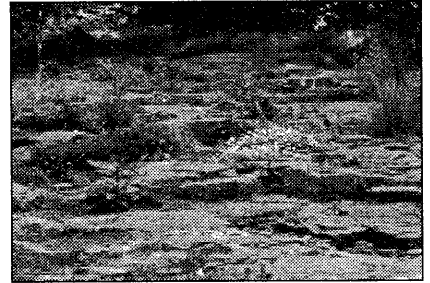


창덕궁 내 보행도로의 마사토 포장

· 식물종의(생태적인) 다양성 고려



다양한 초화류로 꾸며진 정원과 암석원



V. 개선안의 탐구

■ 제1안 : 고증에 의한 사직단의 총체적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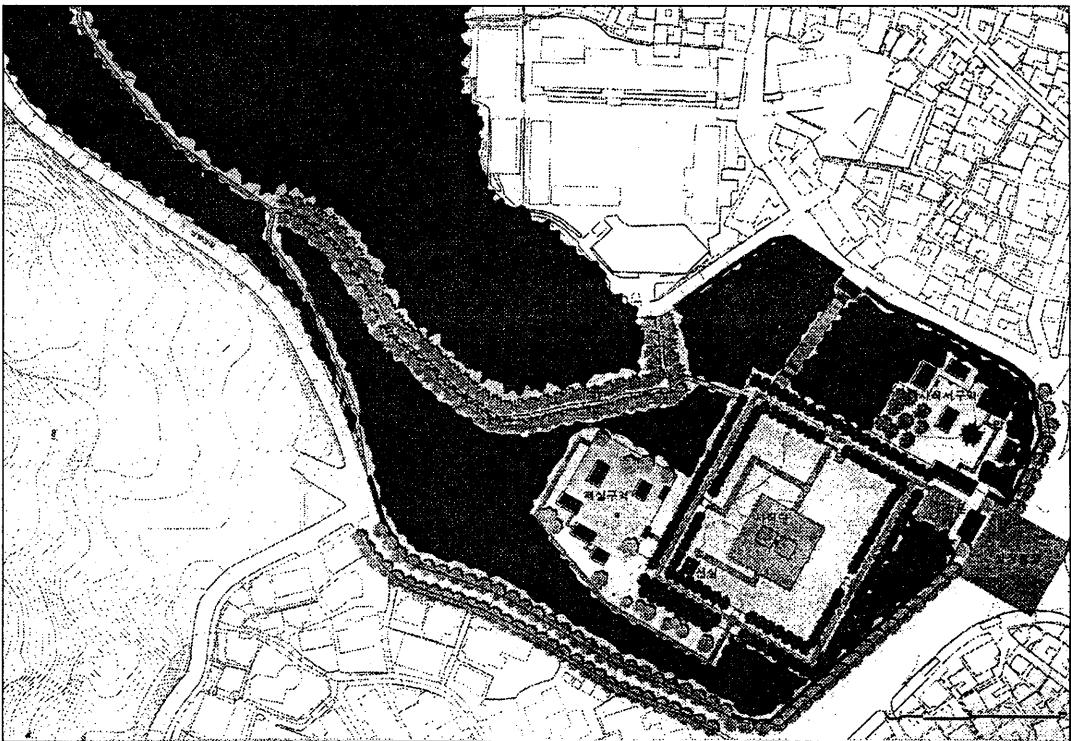
- 고증에 의한 사직단 전체 건물군의 복원
(1985년 서울시 보고서 참고)
- 기존 공원 시설물/ 건축물의 제거
- 사직단 둘레에 담 조성 (절대 보호구역 설정)

강점

- 통합적인 역사경관 및 생태의 복원
-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

약점

- 공원 진입부의 인지성 결여
- 배후 경관과의 시각적, 생태적 연결 취약
- 기존 공원 수요 수용의 문제점
- 기존 근린 행정시설의 이전문제
- 한옥복원을 위한 공사비용 증가



■ 제2안 :사직공원의 현대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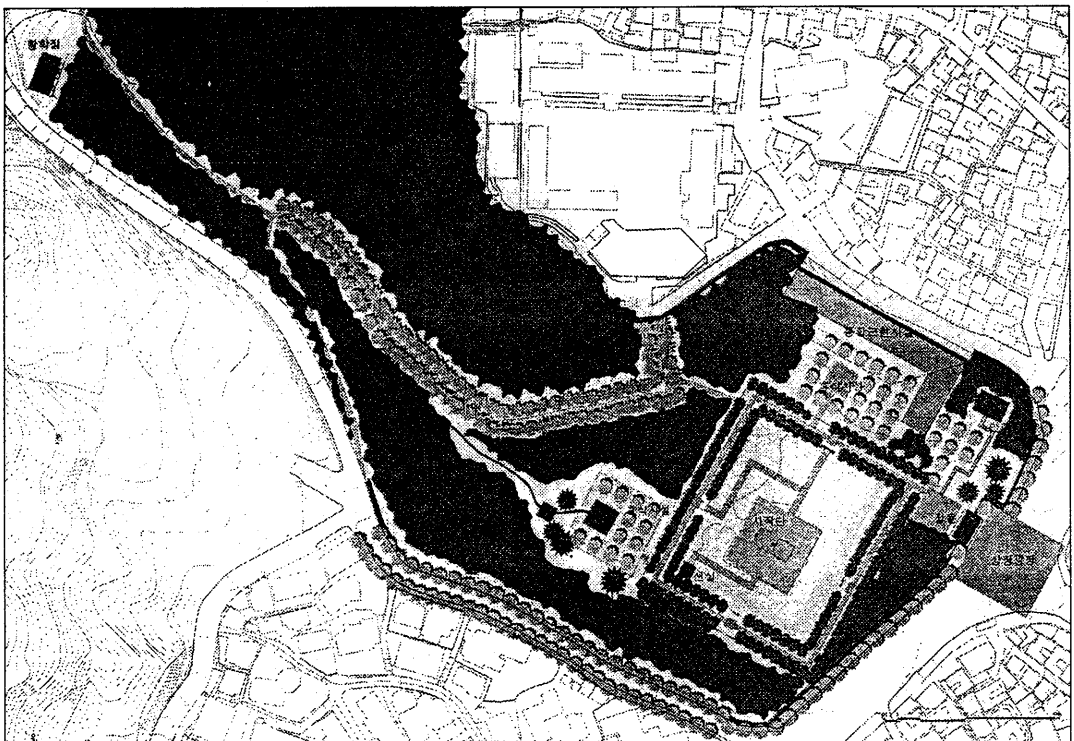
- 기존 공원 영역의 재설정 및 정비
- 현대적 해석에 의한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장소 조성
- 기존 공원 시설물/ 건축물의 제거
(공원의 외곽부에 기존 건물의 기능을 통합한 지형을 고려한 건물 신설)

강점

- 통합적인 경관 및 생태의 복원
- 기존 공원 수요의 충족
- 기존 근린 행정시설 수용

약점

- 종합근린시설동의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예상



■ 제3안 : 기존 건물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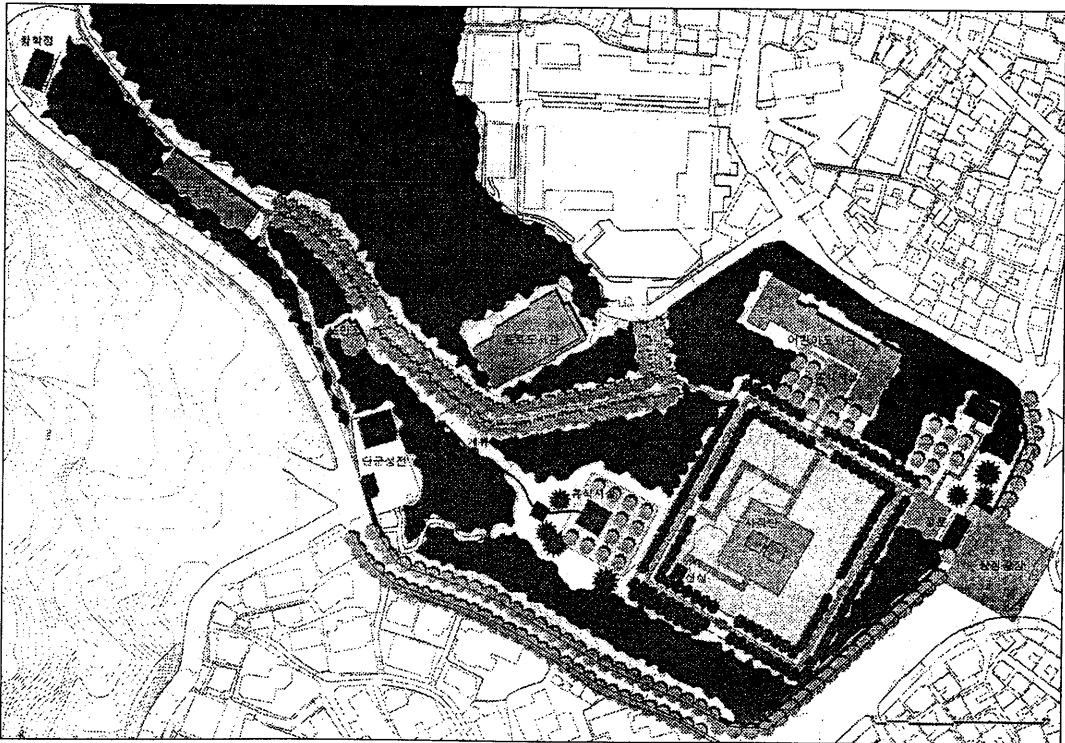
- 건축 전면부, 색상 조정과 차폐 식재를 통한 기존 건물의 유지
- 기존 공원 영역의 재설정 및 정비

강점

- 기존 공원 수요의 충족
- 기존 근린 행정시설 수용
- 1,2안보다 비교적 공사비 절감가능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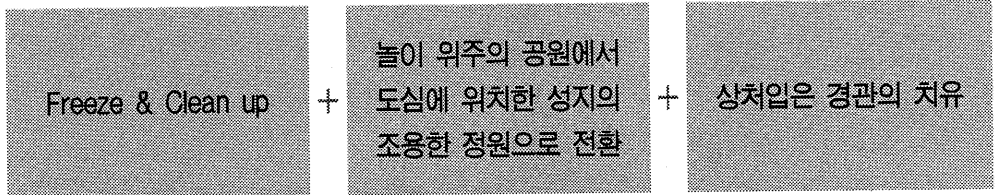
-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경관 및 생태 복원
- 관리의 비효율성



1) 즉각적인 실행 계획 (Immediate Actions Plan)

제안된 3가지의 대안을 추진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현재 사직단을 최대한 보호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한다.

■ 계획의 개념 및 목표



■ 주요 실행 사항

사직단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생태계 진행의 복원

- 건물의 신축 금지
- 혼합한 공원시설물의 제거
- 불투수성 포장면의 제거
- 동상 및 기념비의 이전
- 원 지층의 조사 및 분석
- 자연 수문 및 부지 내 수로의 복원
- 식재, 지형의 재 설계

도시 및 도시환경과의 재결합 및 분리

- 외부 시설물에 의한 공원부지의 점유율 축소
(도서관, 교육연수 원, 체육관, 경로당, 동사무소, 도로 등)
- 소음 차단벽의 도입
- 완충 녹지대의 도입
- 통과교통 및 주차의 제한

토론 I-사직단의 역사공원화를 위하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사직단을 도심내 역사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개의 원칙을 정해본다.

1. 잃어버리고 훼손된 땅 되찾기

壇이란 영역과 높이를 가진 일정한 땅을 의미한다. 社 역시 토지의 신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도심 내에서 사직단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한계 속에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유일한 방향은 인왕산 자락 쪽으로 녹지 축을 회복하는 것이다. 황학정 정도만 남기고 국궁 관련 시설은 한강 둔치로 이전하고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철거한다. 종로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도 철거하여 인근 매동초등학교에 복합 시설을 신축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지형, 인왕산의 경사면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원된 지형에 숲을 만들어야 한다. 불규칙 경사지 속에 나타나는 정방형 평면의 땅, 울창한 숲 속에 한줄기 길만 뻗어있고, 길을 따르다 보면 숲 속의 빈터가 홀연히 나타난다. 그곳이 사직단이고 신성한 역사의 땅이다.

2. 잊혀져버린 의미와 예제의 복원

사직단은 하나의 큰 야외극장이다. 사단과 직단이 의례의 무대라면, 과거 기록에 등장하는 안향청 등 사직서 일곽은 옆무대이고, 전사청이나 재생정의 재실 일곽은 지원시설이다. 건물들의 재현은 사직단의 기능적 의미를 재현하는 중요한 무대장치이다. 특히 재실부분의 재현에는 정확한 고증과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조선 왕궁 등에 설치된 재실건물은 긴 행랑과 단순한 윤곽의 외부공간을 만들며, 그 윤곽 안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연출한다. 기능과 형태, 의미와 내용이 일치하는 건축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묘대제를 재현하듯이, 사직제를 재현하는 건 어떨까? 특히 서궐인 경희궁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복원 경희궁의 가치도 살리고 신문로도 살리는 길이다. 광해군 당시 인경궁을 지어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의 골짜기를 모두 궁궐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희궁-사직단-경복궁을 잇는 역사로를 정비한다면, 광해군의 서울 개조계획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직제에 올려졌던 <악장>의 부활. 음악이 없으면 禮樂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확한 예제를 연구발굴하고 -재현과는 무관하게- 제례용 음악을 발굴 발표한다.

3. 활용보존을 위한 최소시설의 집중

사직단의 제례와 음악은 년 1-2회에 불과한 비일상적 프로그램이다. 매일 매일의 사직단은 시민들의 공원, 그러나 매우 신성하고 정숙한 산책공원이다. 활용 보존이 최선의 보존방법이라면,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문객들을 위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철거된 동사무소, 파출소, 화장실, 관리실 등을 수용할 최소의 근린시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신성한 사직단을 내려다보고, 웅장한 인왕산 전경을 올려다 볼 수 있는 전망용 휴게공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에 집적된 공간을 할애한다면, 사직단의 지면에 걸리는 휴식용 부하는 훨씬 덜어질 것이다. 북동쪽 경계에 띠모양으로 구상된 안을 지지한다.

토론Ⅱ

조 경 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조경학 교수)

“지속성의 염원, 성성의 회복”이라는 발표는 사직단과 인근 환경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합리적인 구상과 개념을 토대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발표내용에 대한 언급보다 포괄적으로 사직단 환경정비의 실천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시청 앞 광장조성, 강북재개발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쇠퇴하는 도심을 살리는 리모델링’과 ‘도시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 하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인지도에서 주변에 머물러 왔던 사직단의 복원 또는 리모델링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묘사직은 서울의 공간원형의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러나 종묘에 비해 사직은 공간적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묘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종묘제례 등 공간 활용 소프트웨어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 생활공간에서도 접근이 유리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UNESCO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직단은 시민의 의식 속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종묘가 조상을 경배하는 도시의 시간축의 공간이라면, 사직은 땅과 곡식을 제사를 드리는 도시의 공간축의 장소입니다. 동일한 비중을 지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직 공간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원형이 파괴된 후 도시공간의 구체적인 복원의 노력들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창경궁과 경복궁의 원형 복원이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원구단 인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역사공간에 보다 편하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사직단은 환경정비는 이제 정부나 시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벨트를 형성할 전략적 거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발표에서도 여러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어떠한 방식의 복원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원형의 복원은 과거 시간의 지층을 살려주는 것이고, 공간적 성격의 복원은 과거의 시간과 함께 현재 시간의 지층도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저는 물리적 원형을 복원하는 방식보다, 공간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부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박물관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보존하고 철거하고 기능을 이전할 지는 보다 섬세한 분석과 의견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사직단 인근의 시설들을 이용하게끔 하여야 시민의 의식 속에서도 사직단의 공간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직단이 성소로서의 의미를 회복하려면 주위가 숲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왕산에서 연결되는 생태축이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일상적인 공원의 기능의 유지하되 공원의 이용하는 방식을 정숙하게 머무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역성의 정확히 구분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코드를 잘 읽고 따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 개조될 공간은 발표에서 제시한 시설물의 구체적인 디테일의 구현될 때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급공사의 구조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보다 질 높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직단의 환경정비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처에서 행한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단의 환경정비를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기금을 모으는 것도 구체적인 사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직단은 진정 새롭게 태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Ⅲ-사직단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송 인 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건축학 교수)

이번 '서울 사직단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의 예술포럼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문화운동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원형을 잃고 훼손된 사직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을 계몽하고, 나아가 역사경관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분 선생님들의 기초논문을 통하여 사직단에 대한 지식과 실천대안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님의 논문을 통하여 사직제의 기원을 보다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 특히 '원구'와 '종묘'와의 관계 속에서 '사직'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욱교수님의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직단이 동아시아 다른 도성의 사직단과 그 입지와 배치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배치형식은 고려 개경의 연장선상에서, 자연경관 및 지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주석 박사님의 제안을 통하여 사직단 영역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바탕으로 현재 사직단을 돌아볼 때, 사직단이 한양의 가장 중요한 의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상실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직로가 개설 확장되면서 옛 사직단의 경계와 접근 방식 등이 훼손·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체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면서, 역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직단의 역사도시 안에서의 위상을 상기시키고, 다른 역사적인 장소들과 잇는 연결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직단이 공원으로 격하되면서, 옛 전각들이 철거되고 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부 영역들이 다른 시설로 점유되고 놀이공간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역과 시설을 회복하고 재구성하여, 현대도시에 남겨진 '역사적인 도시문화공간'으로 정비·치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직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나, 주변 전각들과 영역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의례가 온전하게 재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직의례에 대한 고증과 재현을 바탕으로 '의례와 장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분 선생님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영춘 연구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원구단과 종묘와 사직단 외에도 선농단과 선잠단, 또는 영희전과 같은 의례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의례공간들의 위계와 관계, 그 성격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직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도시 서울의 의례공간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김동욱교수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직단 영역을 회복하고 주요 전각들을 복원하려할 때, 유일한 자료는 '사직서의궐' 인지요? 그 책에 수록된 '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은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토대로 그려진 것인지, 그밖에 복원을 위한 참고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유럽이나 다른 동아시아의 보존정책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사직단 영역과 전각을 어느 수준과 방식으로 회복·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주석박사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대안에서 입구광장을 포함하여 사직단 영역의 경계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영역으로 사직단을 한정하되,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만나는 부분 및 인왕산과 만나는 부분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 '사직단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일'의 첫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